

하나님의 모든 계획

All th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

All the counsel of God <사도행전 20:27>

김 영 균 지음



KJ 도서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하나님의 모든 계획

All the counsel of God

©2015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펴 낸 곳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15. 2. 10
지 은 이 | 김영균
표지사진 | 안성식
디자인·편집 | 김화영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 ISBN 978-89-89741-74-9
■ 정가 8,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CONTENTS

I. 성경의 구성	11
II. 역사의 주인공 어린 양 예수	42



But I will shew thee that
which is noted in the scripture of truth...

(Daniel 10:21a)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다니엘서 10:21a)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 Christ Jesus Publications.



다음 강의는 진리침례교회
부설 킹제임스 성경학교에서 강의한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룬 것입니다.
구어체 그대로 녹취한 것이므로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강의를 읽는 것이라기보다는
듣는다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압축되어 있어 성경에 어느 정도 익숙하지 않으시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 성경의 구성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연구(study)하라고 명령이 내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연구하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 “진리의 말씀”

무엇을 할 것인가? ⇒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

왜(목적 또는 이유) ⇒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방법론 ⇒ “올바로 나누어서”

오늘 마치 의학공부 하듯이 사람의 골격과 같은 성경의 기본 뼈대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봄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전에는 성경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없던 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자주 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실감나는 것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식사할 때 무지몽매(無知蒙昧)하게 누가 주신 건지도 모르고 먹었지요. 점심식사 후 누가 아이스크림만 사오더라도 누가 사온 거냐고 하고 먹는데, 일평생을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모르고 먹다가, 구원을 받고 나면 한끼의 식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 내가 신문에서 읽은 것 등의 온갖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인생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한 대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었습니다. 나 혼자 내 멋에 살아왔습니다. 요즘 특히 신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제 멋에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내 뜻대로 멋있게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

은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아담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과 원수 된 삶이라고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 (롬 8: 6)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안 믿을 때와 비교해 다른 점은 딱 하나뿐이에요.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인간은 왜 질병에 걸리는가?”

“왜? 인간은 어떤 때는 착하다가 어떤 때는 악해지는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상하다, 왜 인간이 어떤 때 보면 천사 같다가도 어떤 때 보면 마귀같이 행동하고 왜 그럴까?”

이 모든 것들,

“죽음이란 무엇인가?”

“질병이란 무엇인가?”

“왜 인간은 남자 여자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런 모든 궁금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음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이다, 그것만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만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성경은 나에게 삶의 기준 곧 최종권위가 되는데, 단순히 나의 도덕적인 삶의 기준뿐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인간이 왜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해설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교리’와 ‘진리’는 같은 말입니다. 진리는 포괄적인 의미이고 교리라고 했을 때에는 구원에 관한 진리는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하고, 종말에 관한 진리는 종말교리라고 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가 진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까.

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8.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요16:7~8)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즉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것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어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지 그냥 “믿음”은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요16:9)

두 번째 의(義)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의(不義)하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회수되고 몸은 무덤으로 가며,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도 일으켜지셨고, 몸도 일으켜지셨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죽고 난 후에 아버지께로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만이 의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 자기 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백성들의

자기 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요16:10)

세 번째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16:11)

이 세상의 통치자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집행만 안 됐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따라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마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틀림없이 이 세가지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거리설교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로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란 무엇이나,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질책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불의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당신(내가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이분을 받아 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주관자가 심판 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안 믿는 사람에게 세 가지를 책망하시기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수십 가지의 역사를 합니다. 위로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인도도 해 주십니다.

하지만 핵심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무슨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은사를 외쳐봐도 진리를 모르면,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못 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3절 “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요16:13)

보십시오. 여기서는 『... 너희 ...』입니다. 앞서 『... 세상...』입니다. 앞서서는 세상에 대하여는 꾸짖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 구원받은 자들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성령께서 오신 제1목적에 부합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령을 찾아도 진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령께서 그에게 진리를 알려주려 오셨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은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구성

오늘 첫째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숲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숲 전체를 보고 난 후에 시냇가에도 가보고, 꽃밭도 가보고, 광야도 가보고 여러 곳을 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기는 하는데 하나만 파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서 그것이 전체인 줄 알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언약신약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셨는데도, 마치 성경의 유일한 주인공이 교회인 것처럼 즉 구원받은 교회만이 성경의 유일한 기록 대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창세기 1장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다 교회에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4분의3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고, 그다음에 교회시대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제일 큰 구분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성경은 말라기 4장까지 되어있고 그 다음은 신약성경이라는 제목이 다르게 붙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받았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신 걸로 봐서 모세부터 침례인 요한까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세 이전에 관해서도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여러 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구분 : 타락 이전

종합적으로 보면 성경의 첫 번째 구분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이 구분은 타락 이전 상태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두 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16.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6~17)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번째 언약은 선과 악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17

14.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흠을 먹을 지니라.

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현재 땅은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땅은 엉겅퀴도 내고 가시도 냅니다. 결정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중독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약은 전부다 식물로부터 나옵니다. 즉 식물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중독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약 전문가들은 마약중독현상이 있고 그 중독물질은 식물로부터 채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마약물질이 식물로부터 나오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기 3장의 저주로부터 그 중독 물질이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저주가 풀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입니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샘이 넘쳐난다고 하십니다. 지금 아마존이 심하게 황폐해지고 있고 세계의 사막의 면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사막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엘니뇨와 더불어서 기상변화의 가장 커다란 요소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 되었다는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푸실 때 땅이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샘물이 넘쳐흐르고, 사막에서 꽃이 피어 향내 낸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19.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3:14~19)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까지가 첫 번째 구분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구분

두 번째 구분은 성경에 창세기 4장서부터 12장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서부터 12장까지는 두 개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입니다.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가십시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replenish).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조스가 사람에게 덤비는 것을 예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은 예외에 속합니다.

3.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오늘날 채식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 디모데전서에서 고기를 금하는 것은 마귀들의 교리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면 모든 음식이 깨끗해집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먹는 것이 마귀들의 교리라고 하셨습니다.

니다. 위치만 나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사람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다른 생명체가 희생을 당해야(고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4.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피는 먹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분은 “어! 나는 거둬 나고 나서 선짓국도 많이 먹었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선짓국은 괜찮습니다. 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생피’를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굳은 피는 괜찮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을 때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루피 먹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고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왜? 용서 받지 못할 죄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건 피 하셔야 합니다. 율법시대 이전에도 피를 금했습니다. 율법시대에도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피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권고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5.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6.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아담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어리석은 일들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모여서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건의하거나 사형제도 폐지 결의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여자 목사 임명을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7.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창9:1~7)

지금까지 창세기 4장부터 12장까지에 등장하는 두 가지 언약 중에 첫 번째 언약이 노아의 언약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12장 1절 에서 3절 까지입니다. 역시 지금도 유효합니다.

1.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3.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창 12:1~3)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나중에 3개 조항이 추가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13장 14절과 17절 사이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15장 18절에 가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추가사항이 나옵니다. 헌법에도 보면 나중에 추가사항이 들어가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서 또 추가사항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추가사항이 들어가는데 창세기 22장 16절과 18절에 추가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는 장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세번째 구분

세 번째 성경의 구분은 창세기 13장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를 약속해 주셨는데 이 여자의 씨가 이 지상에 등장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등장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그 임무가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씨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됐고,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약속된 씨가 오실 도구로서 선정하십니다. 창세기 13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선정되는 과정과 그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지파가 선정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물론 자기 며느리인 다말과의 나쁜 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대신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놓았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시므온을 되 찾으러 왔었습니다. 그러다 베냐민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은잔을 훔친 것으로 발각이 되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유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44:33)?

창세기 37장부터 읽어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152가지나 닮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 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은잔을 훔친 베냐민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힐 테니까 보내달라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모습, 즉 메시아의 선조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유다가 선정된 배경을 출애굽기 19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태어날 지파인 유다 지파의 여러 가문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으로 축약이 되는데 그 유다 지파가 선정되기까지 마귀가 어떤 역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태어나게 하신다니까 그 때부터 마귀가 언제 여자의 씨가 태어나는가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었습

니다.

초점이 “씨”에 있습니다. 씨를 후손으로 번역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씨”는 “씨”로 번역해야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씨”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인의 씨고, 그 씨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시게 되어 있는데, 그 씨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방해했는지 보겠습니다.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을 사탄이 보고 여자의 씨가 아벨의 후손으로부터 오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 마귀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최초의 살인자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가, 즉 마귀로부터 나온 자인 가인이 이 씨를 죽여 버린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에 약속된 씨가 못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셋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지상에 씨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려면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철저히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짙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의 씨를 혼잡하게 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대거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버렸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 천사가 사람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천사의 지위를 버리고 내려온 내

용이 영화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언급하신 나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씨를 보낼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브라함의 순결을 좀 없애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시켜서 이스마엘을 낳도록 했지만, 하나님은 순수한 혈통인 사라를 통해서 다시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그 씨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에서를 들쭉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피신시키십니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에서의 발언은 사탄이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더라면 베드로에게처럼 “물러가라 사탄아” 하셨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번성할 것이고 결국은 그 씨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지파를 싹 죽이고자 합니다. 방법은 파라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예표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파라오의 별명은 용입니다.

『큰 용 너 파라오야~』(에스겔 29장 3절) 즉 용입니다. 마귀를 예표 하고 있는 이 파라오가 남자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합니다. 여인의 씨가 나오면 마귀는 곤란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집요한 공작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누군가 나타나면 혹시 이 자가 여인의 후손인가 하고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하게 해서 모압 여인들과 가나안 여인들하고 결혼시켜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항상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두 살 이하로는 모조리

죽이라는 것입니다. 해룻을 들쭉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들이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신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시험에 합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 합격시켜주신다는 말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라는 말이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격시켜달라고 기도는 하되, 합격이 안되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면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것과 죽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른쪽의 강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거듭난 후에 마귀로부터 유혹 받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직통으로 셋째 하늘로 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더 나은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자!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라는 불임여성입니다. 리브가도 불임여성입니다. 이삭의 아내도 20년을 기도해서 겨우 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두 지파인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라헬도 불임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되게 하실 것을 예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서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유다 지파의 선택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네번 째 구분: 모세의 율법

출애굽기 20장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가 또 다른 성경의 구분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한 마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8.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출19:8)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십계명과 육백개의 법을 모두 지킨다는 말입니다. 행함에 의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2.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롬10:1~2)

여호와와의 증인, 몰몬, 안식교까지, 이 모든 교파가 보이는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3.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10:3~4)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비로소 새 언약이 세워집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에 있지만 아직 구약이 적용되는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약이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끝이 되시며,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5.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롬10:5)

율법을 “행하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6.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롬10:6)

“믿음에서 난 의”는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에서 난 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계시록 4장까지는 믿음에서 난 의를 이야기합니다.

7.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롬10:7)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위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 봐야 마귀가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15.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욥15:15)

16.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 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딤후6:16)

8.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롬 10:8)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시대는 율법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

10.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골3:10)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형상이 나옵니다.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는 자들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입고 있는 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다섯 번째 구분: 신 • 구약의 과도기

성경의 다섯 번째 구분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사도행전 2장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과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발효가 되려면 죽으셔야 합니다.

15.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9:15)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사도행전 2장에서야 이루어집니다.

11.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17:11)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침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유기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
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
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0여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순간에 예수
님의 몸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
전 2장까지는 과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
전 12장까지의 성경은 구약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까지도 사람들이 아직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공식적
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행10:14)

지금 베드로는 아직 율법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시대가 시작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미 율법과 상관없는 은혜시대가 시작된 것을 모르고, 10장에서도 아직도 구약의 레위기에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섯 번째 구분: 교회시대

그래서 바울에게 교회시대에 관한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서신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14장까지는 본격적으로 교회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17장의 기도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로마가톨릭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응답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되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가톨릭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한 목자 아래 온 지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 아직 안 모였기 때문에 아직 하나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

을 거부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언급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가톨릭 교황이 이 지상을 모두 통치하게 되는 때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교황) 목자가 우상목자(스가랴11:17)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성경 구분

일곱 번째 성경의 구분은 계시록 5장에서 19장까지 입니다.

이 시대는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다니엘의 칠십째 주”, “야곱의 고난의 때” 입니다.

7.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렘30:7)

분명히 “야곱의 고난의 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거 된 이후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의 환난 통과를 잘못 믿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4장에서 교회가 휴거 된 이후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관련 있다는 말입니다.

워치만 니라는 분은 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의 시대가 다니엘의 칠십째 주라 ‘야곱의 고난의 때’인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시대로 알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워치만 니의 지방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시대 이전에 휴거하는 사람을 “사내아기”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의 사내아기가 되자고 외칩니다. 그들은 “사내아이”를 승리한 사람이라고 하며,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내아이가 되지 못한 사람은 롯처럼 실패한 자로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롯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아닙니다. 롯은 유향불을 맞지 않았습니니다.

성경구절 하나를 잘못 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had been”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시제를 잘못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헬라이어 원본을 봐서 “as it had been slain”(죽임을 당하였었던)을 “as it has recently been”(최근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이라고 번역을 해서 계시록 5장 6절의 상황을 십자가 사건후 2000년 후인 휴거 직후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시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승천은 십자가 사건과 가까우므로 “recently”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시록 5장 6절부터가 교회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흰말 탄 자가 환난시대의 적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워치만 니같이 600개의 교회를 세우고 7만 명을 예수 그리스도계로 인도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도 변개된 성경구절 하나를 잘못 보면 진리를 틀리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틀린 건 틀린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계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신이 휴거 될지 어떨지

몰라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계시록 5장에서 19장에 해당하는 교리를 교회시대에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여덟 번째 구분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는 영원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은 영원 전부터 연결되고 계시록 22장은 영원 후로 연결됩니다.

성경의 유기적 구성의 특성

잠시 성경의 유기적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계시록 21장 22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금, 텔리움과 줄마노 등 보석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가면 진주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금도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강이 4개가 나옵니다. 계시록에는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에덴동산과 새 예루살렘도 짝을 이룹니다. 우리의 몸이 알게 모르게 유기적으로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되어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심판은 다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사탄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반

역을 합니다. 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직전에 마귀가 등장하여 심판 받고 등장해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망쳐놓은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은 사탄에 대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흑암”, “공허하다” 등의 표현은 심판에 대한 결과입니다. 심판 후에 창세기 1장 3절에 재창조를 하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 창조 이후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다시 나옵니다. 계시록에서도 21장에서 곡과 마곡의 반역을 평정하고 회복과 축복을 하는 순간에 마귀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 인간을 한 그룹으로 다루십니다. 마지막 때도 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그룹으로 다루십니다.

여섯 번째는 역사의 시초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유대 민족을 다루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유대 민족을 다루셨습니다. 그 후 말라기에서 유대인을 다루셨습니다. 마지막 때도 유대인이 주인공입니다. 마지막 때도 계시록 5장에서 19장까지에서 유대인이 중심이 됩니다. 복음도 유대인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유대인이 먼저 그리고 이방인 순입니다. 인간 전체를 다루신 후에 예수님께서 초림 하십니다, 마지막 때도 계시록 5장에서 19장까지 인간 전체를 다루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초림과 재림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계 조립품처럼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요5:39).

초림에 이어서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에 앞서서 과도기

가 있습니다. 재림에 앞선 과도기가 교회시대입니다. 성경을 쓴 사람은 성경이 이러한 책인지 전혀 모르고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0.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11.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12.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벧전1:10~12)

천사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과도기로 집어 넣어서 그러한 특별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성경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역사의 주인공 어린 양 예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45장 18절을 한번 펴 보십시오.

18.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For thus saith the LORD that created the heavens; God himself that formed the earth and made it; he hath established it, he created it not in vain, he formed it to be inhabited: I [am] the LORD; and [there is] none else. (사45:18)

여기 보시면 “거주하도록”이 목적어입니다. 그 앞의 “헛되이(vain)”라는 말은 라틴어의 “텅 빈” 또는 “공허한”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서 원래 창조하실 때는 공허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라는 주어는 원래 없는 것입니다. “to be inhabited”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는 말은 없는 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번역상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사람만 거주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사람이 거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아서 창세기 1장 2절에 완전히 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1장 28절에서 다시 채우라고 하십니다.

지난번 창세기 1장 28절에서 왜 ‘다시 채우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38장 3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땅에 가득 차도록 거주하도록입니다. 그럼 누가 거주하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주했었습니다. 루시퍼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위임 통치케 하셨는가? 권위를 누구에게 줬냐 하면 루시퍼에게 줬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지구)을 담당하는 루시퍼와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original plan)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들로 무한한 우주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들로 온 우주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취임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찬가를 부르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만한 세계를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의도였으나 이 첫 번째 의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시키시지만요. 이러한 목적의 최초의 시도는 이들 영적인 존재들이 반항함으로써 창세기 1장 2절에서 끝나 버렸습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황폐하고 완전한 심판의 그림자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비록 사탄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사역을 다시 하시기 위해 우주를 재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채우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사명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며 다시 채우라고 했던 그것입니다.

우주의 재창조는 창1장 2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시작하는 재창조와 더불어 사람에게 뭘 맡기셨는가? 온 우주에 가득 차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원래 목적을 떠나 하나님의 아들이들이 반역했습니다. 그런 실패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고 온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고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생명력이 충만합니까? 바다 밑을 촬영하면 온갖 물고기와 산호초 등으로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에

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옛날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나옵니다.

1.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3.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5.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8:1~5)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별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식물, 동물 등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그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매일 얻어가고, 부모를 속 썩인 것밖에 없는데 부모는 계속 내리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에 관한 사랑입니다. 본질적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

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5절에서 무너집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아메바에서 진화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십니다. 얼마 후 폐위되긴 하였지만 아담을 지구 왕국의 1세 왕으로 등극시키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십니다.

6.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사오니

7.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8.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9.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시 8:6~9)

그런데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번에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보다 조금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도도 창세기 3장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마귀가 살살 다가와서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기록은 한가지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타락한 피조세계(creation)를 구속하시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창조세계와 창조물을 구분하지 못하면 골로새서의 해석이 안됩니다.

Creation은 생물체나 무생물체 모두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땅, 하늘 모든 무생물을 포함해서 생명체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creature라는 말이 나오면 생명체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번개한 성경이 많습니다.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여기서 창조물을 creation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5.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creature)의 처음 난 자이시니(골1:15~16)

여기서도 창조물을 영어 creation으로 고쳐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증인처럼 ‘예수님은 피조세계의 처음이므로 창조된 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장하여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만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땅과 하늘도 저주로부터 구속하십니다. 새로운 세계가 됩니다. 거듭남 즉 중생이란 단어가 땅과 하늘이 완전히 불타서 새롭게 될 때 언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최초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완성하시는 과정을, 그러니까 최초의 이사야서 45장18절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온 우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수조개의 별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내용이 성경의 나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22장에 가면 드디어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과 두 번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뱀에 의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는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모든 창조물의 첫 태생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두 번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인류인 둘째 사람 안에 속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셨는가를 공부합니다.

첫째로, 어린 양은 이미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기 전에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니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성경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가? 예표적으로 어린 양은 창세기 3장 21절에 벌써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록 13장 8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

자, 그럼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coats of skins)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KJV 창3:21)』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졸업 시 주는 졸업장을 “sheep skin(양가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빌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양가죽 옷을 입어야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셨는가는 분명합니다. 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라고 양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옷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 불법을 네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바꾸어 네게 입히리라, 하시기에(슥3:4)

불법을 떠나게 하고 옷을 바꾸어 입힌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십시오. 왜 더러운 옷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더럽다는 것입니다.

6.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앞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사64:6)

10.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같이 그 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겹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사61:10)

27.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7)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대언자(예언자,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7.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만일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시니라.(창20:7)

아브라함이 예언한 것을 보셨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예언한 것은 어린 양에 대한 예언 딱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야,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창22:8)

어떤 분은 이 내용이 바로 다음에 성취되는데 왜 예언이냐고 하겠지만, 그 아래 보면 양이 있는데, 그 양은 이 양과 다릅니다. 8절은 “어린 양

(lamb)” 이고 13절에는 숫양(ram)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의 숫양은 어린 양을 예표 할 뿐 8절의 어린 양은 아닙니다. 8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영어성경은 “자신을 위하여” 대신 “자신을” 이라고 번역이 가능함)

14.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창22:14)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바로 그곳입니다. 즉 시온산,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다 보면 지금 이 이삭이 죽은 장소가 보입니다. 곧 예언입니다. 그 장소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서 희생제를 지냈던 장소이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에 의해 어린 양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 양이 적용되어서 죽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여러가지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출애굽기 12장도 해당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고 쓴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보십시오.

1.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출12:1~2)

유대인들은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빔월이라고 해서 이달 곧 유월절이 시작되는 달을 첫째 달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달이 첫째 달이고 민간적으로는 다른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십니다.

3.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십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4. 그 어린 양(the lamb)에 대하여 집안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魂)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5. 너희(your)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4절에서 어린 양이 그 어린 양(the lam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양입니다. 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the lamb)이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이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a lamb, the lamb, your lamb 등과 같이 정확히 기록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즉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6. 같은 달 십사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일 월 화 수 10, 11, 12, 13, 14까지 간수하였다가….)

7.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기둥에 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즉 세개의 십자가가 있을 것을 정확히 알고 피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8.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9.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입니다. 유대 인들은 밤이라고 하면 오후 6시부터입니다. 오후 6시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3일 낮 3일 밤 72시간 후에 부활하십니다. 수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부활을 금요일로 해서 성금요일(聖金曜日)이라는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 놓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유대 날짜 기준으로 일요일 새벽에 부

활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입니다.

『~ 불에 구워 ~먹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날것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 의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매치가 됩니다. 4일간 기다리는 것과, 양 한 마리가 그 양이 되었다가 너희 양이 되는 것과 6절에도 회중 전체인데 “it”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예언입니다. 양이 무척 많을 텐데도 them으로 되어 있질 않고 “it”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어린 양이 의인화되고 어린 양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어린 양이 의인화된 것은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그 출애굽 당시 유월절 때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아주 중요한 핵심구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인데 이사야서 53장은 전부 과거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초가 놓인 이래 어린 양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히브리어의 특징이 원칙적으로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입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자 빌립을 보내셔서 마차에 다가가게 하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읽고 있는 구절을 알게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자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디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는 고백과 아울러 즉시 물속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신약적 방식에 의해서 최초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신약이 적용된 사람은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입니다. 그는 신약적 구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에티오피아내시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절에 그 어린 양이 의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인생을 고달프게 사셨는지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53:3)

예수님은 33세 때 50세정도로 보였습니다. 오십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냐고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보면 그 왕이 자신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In his beauty”라는 말이 나옵니다.

초림 때는,

4.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사53:4)

그분이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잘못해서 죽으셨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5.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사53:5)

이걸 깨달으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는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오순절교파에서 이용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병에도 안 걸려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치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붙어있는 한 병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치유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시대에 적용되어야 한

다면 잘못된 교리가 됩니다.

바울은 항상 의사를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왜 이 구절이 바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친구인 드로비모도 아파서 밀레도에다 놔두고 갔고, 그리고 디모데도 아파서 위장병에 포도즙을 조금 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고침을 받았도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 전체가 예언입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을 과거로 쓴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땅도 저주가 풀립니다. 우리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뿐 아니라 땅도 치유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붙들고 주님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려서는 안 되고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교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8.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바로 이 7절과 8절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누구니까? 그 선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

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어 봤을 때 즉시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에 관하여 묻거든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사야서 53장을 펴서 이거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빌립처럼 성경을 펴서 “이분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으로 예표되어 있었고 창세기 22장에서 예언되어 있었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적용되었고 바로 여기서 의인화 되었다가 그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보라”에서 요한이 신원을 확인했고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받으시고 계시록 5장에서 온 우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어린 양이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십니다.”라고 말해 주시나요?

이걸 알려주는 준비를 갖추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묻는 순간에 정확한 복음을 전했고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9.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강도 두 사람과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주었던 것은 위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10.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

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이 사디스트냐고 하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맺을 열매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 즐기는 사디스트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11.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요18:37) 그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사53:6~12)

창세기 3장에서 예표 되었고 22장에서 예언되었고 출애굽기에서 적용되었던 그 어린 양이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예언이 바로 여기에 의인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 신원이 확인됩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어린 양이 누구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던 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길로 갔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했던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보는 즉시 외칩니다.

29.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요1:29)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 저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치밀한 계획하에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여러분께서 복음서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가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1.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2.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3.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4.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5. 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6.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전에 죽임을 당하신 것 같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7.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8.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매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 죽임을 당하사~』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휴거 될 때 완전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손에 창에 찔린 모습을 계속 지니고 계십니다. 계속 “죽임당하였던 것 같은”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10.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이란 표현이 또 나옵니다.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14.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계5장)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10.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11. 또 모든 허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10~1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19장에 가서 드디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즉 신부와 혼인식을 올리게 됩니다. 어린 양은 드디어 역사의 정점에 서 계십니다. 온 우주가 기뻐하는 날.

9.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계19:9)

9.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병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 주리라, 하고(계21:9)

시편 45편은 어린 양의 혼인식을 보여주는 정점입니다.

1.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2.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시45:1~2)

초림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굴욕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모습

이 흠모할 것도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이 태어나야 하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목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시45:3)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4.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5.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나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6. 오 하나님이며,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흠(笏)은 의로운 흠이니이다.

7.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8. 왕의 모든 옷은 상아 궁궐에서 나오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9.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시45:4~9)

왕비는 여러분과 접니다. 우리는 신부인 왕비이고 왕비 이외에 다른 여

인이 있습니다.

10.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11.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네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시45:10~11)

솔로몬의 노래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스러운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화된 몸으로 서게 되면 옛날 자신의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12.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네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13.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14.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시45:12~14)

신부가 있으면 후궁도 있고 동료도 있고 처녀도 있습니다. 처녀는 마태 복음 25장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은혜시대의 유대인, 율법시대 이전의 유대인, 율법시대 이후의 이방인 등을 포함해서 일곱 여덟 종류의 혼인식 참석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5.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 다.(시45:15)

22.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계21:22)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할 때에 “거한다”는 단어가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셨을 때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우주는 피라미드 모양인데 꼭대기가 머리 되신 예수님 곧 머릿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이 통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바로 우주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머릿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성전입니다. 내가 곧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주의 구조가 예수님의 옷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는 3층으로 되어있고 성막도 그러하고 우리의 몸, 혼, 영의 구조와 같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세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거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3.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계21:23)

어린 양이 그 도시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27.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계21:27)

어린 양의 생명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계22:1)

그곳에서는 한없이 생명수가 흘러 나옵니다.

3.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계22:3)

위와 같이 어린 양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서부터 예표와 예언과 적용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주인공이요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분입니다.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나오냐고 하는데, 지금까지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15절에 여인에 후손으로 나왔고, 창세기 3장 21절에

어린 양으로 나왔고, 가죽옷으로 나왔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바친 양으로 나왔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왔고, 성막으로 나왔고, 성경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성경의 초점은 모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게 맞추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유기적 구성과 관련 지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8.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잠11:28)

“가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인데, 이 “가지”가 네 번에 걸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지상사역에 관하여 성경은 네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예언했는가 보십시오.

5.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6.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렘23:5~6)

여기서 의로운 가지인데,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와 있는 왕은 마태복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8.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 있는 네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슥3:8)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묘사되어 있는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행동만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참된 인간으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담까지 족보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종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족보가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짧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예수님의 행동만 보여줍니다. 일하는 것이 종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12.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슥6:12)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를 통해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만드신 원래 첫째 아담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독특한 내용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되어 있는 누가복음, 그래서 “가진 사람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그 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사4:2)

여기에 “주의 가지”라고 되어있는데, 영어로 보면 “주”와 “가지”가 동격으로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라고 하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뜻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city of Seoul도 보면 city와 Seoul은 동격인 것과 같음) 실제로 “주”가 곧 이름입니다.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바로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주”, 아버지께서도 “주”, 성령도 “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면 주의 다른 이름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갈라디아서 3:14을 보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슨 약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이

바로 동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of”라는 전치사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일 먼저 문제를 많이 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계1:1)”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번역을 해 놓으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성경이 틀렸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요한이 계시를 줬냐고 반문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제목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한 것은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나있는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 책 자체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누가 주었나요? 요한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주격으로 해석해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이기도 하니까요.

14.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계3:14)

여기서도 “of”라는 전치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를 잘못 해석해서 여호와와 증인들은 하나님을 피조된 신으로 여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를 시

작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of”를 목적격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면, “주의 가지”라고 하면 주님의 가지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라고 하는 가지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번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여~”하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사건에서 오른쪽 강도입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여~”하고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여~”라고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35.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요9:35)

변개된 성경에는 “인자를 믿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하면 성령이 무슨 다른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곧 약속입니다. 뉴욕 시라고 하면 city of New York 이라고 하는데 뉴욕이 어떤 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뉴욕과 시는 동격으로 뉴욕이라는 시라는 뜻입니다. “Name of Lord”도 같은 경우입니다. 주의 이름이 뭔지 사람들에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예수인가? 여호와인가? 만약 예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42.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눅23:42)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라는 인간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을 보면 이 “주여”라는 단어를 “예수여”라고 고쳐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세티스트라는 이단인데,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령을 받는 순간에 신격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었지만, 나중에 실패해서 죽는 순간에 신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어떻게 죽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 했는데, 생명이 어떻게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의 답은 “주”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으로의 예수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읽고 성경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32.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고전10:3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대상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일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경고가 있습니다.

9.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계3:9)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유대인이 있고 육적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16. 이 규칙에 따라 걷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갈6:16)

여기서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합니다.

28.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롬2:28~29)

여기서 “속으로 유대인” 과 실제적 유대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롬3:1)

여기서의 유대인은 실제적, 육체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을 테마로 삼아서 유대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과학적 사실들을 다루셨습니다. 창세기 3장, 4장에서는 심리적 문제를 다루십니다. 창세기 5장에 가시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통계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인류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

나눔께서 인류를 심판하셔서 인류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인류는 각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명령을 어기고 아프리카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있던 함족이 나중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다시 한 개인에 대한 언급으로 성경의 역사가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전통 유대인을 보면 외모로 보아도 아주 독특합니다. 이 백성들이 왜 신비 중의 신비인가? 프러시아 즉 독일의 왕 중에 프레드릭이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그가 궁정 목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증거를 대 보라고 했을 때, 궁정목사가 한 답변이 “그건 바로 유대인입니다. 폐하! 유대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내용 중에 4분의 3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즉시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인종 차별주의자이십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함족을 저주하셨습니다. 야벳족에게는 『크게 만드시리니』라고 물질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셈족에게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함으로 모든 종교에 관한 한 셈족이 만들어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함족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인종 차별주의자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면에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은, 성격,

입맛, 등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모두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법관 등 높은 사람들은 분명히 법 앞에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어떤 면에서 평등하냐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독특한 면을 다시 살펴보면, 유대인은 오래 되었습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4천년 역사에 그토록 철저하게 역사를 고수하고 조상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왕 시대에 영광을 누렸는데, 그 시대의 문명과 영광이, 그 이후에 있었던, 바빌론제국, 아시리아, 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모든 이방제국들보다 뛰어나 있었고, 앞서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오기 4백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나오기 오륙백 년 전에, 공자가 나오기 삼 사백 년 전에, 부처가 나오기 삼 사 백 년 전에, 이미 솔로몬은 그들이 어떠한 철학을 전개할 것인지를 전도서와 잠언에 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즉 그들의 문학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몇 천 년이 가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독특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엄청난 박해를 받아도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2. 그곳에서 여호와와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습니다.(출3:2)

가시덤불은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6.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말3:6)

신비가 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몇 천 년 동안 수 없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수없이 침략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그 민족이 종교도 안 없어지고, 언어도 안 없어지고, 풍습도 안 없어지고 여전히 유지되었을까? 앗시리아, 페르시아 등 수많은 민족이 사라지고 망했는데, 어떻게 형편 없는 이 민족은 끝까지 살아남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섭리적으로 성취시켜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살펴보면,

1. 출애굽기 2장에서 파라오에 의해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2. 사사기에서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3. 열왕기하를 보면 산헤립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4. 예레미야애가를 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대량학살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A.D.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수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예루살렘성이 함락당했습니다.
6. 역사를 뛰어 넘어서, A.D.1020년 영국의 카누트라는 왕 시절 영국

에서 모든 유대인을 쫓아냅니다.

7. A.D.1096년 전 유럽에서는 가톨릭이 주는 유아세례를 안 받는 유대인을 모두 죽이는 말살 정책이 시행됩니다. 여인의 씨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반유대주의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8. 1272년 영국의 에드워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전부 쫓겨납니다.
9. 프랑스에서는 1306년 유대인들의 재산을 전부 박탈하고 괴롭힙니다.
10. 1348년 독일에서는 페스트라는 병의 모든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려서 유대인에게 심한 핍박을 가합니다. 화형을 시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스트가 퍼져서 유럽의 약 3분의1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생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위생법을 따릅니다. 항상 손을 씻고, 항상 정결케 하고,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진영에 들어오지 않는 등의 위생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주신 위생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이집트의 병을 하나도 안 생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집트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병에서 보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그중에 위생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11. 1492년 스페인에서 완전히 1400년 동안 살던 나라에서 쫓겨났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12. 다음 20세기에 와서는 신들러리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듯이 유대인들을 목욕을 시킨다고 하고는 가스실에 데려가서 집단으로 독가스로 살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집요하게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1914년 제1,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에서 한 번 돌이켰는데, 두 번째로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뻗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해안 지대로부터 그의 남은 백성들을 되찾으실 것이다.

11. 그는 여러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들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며 땅 끝 사방에서부터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부르실 것이다.(사11:10~11)

아시리아는 북쪽입니다. 바빌론은 동쪽입니다. 바빌론에서 첫 번째 귀환할 때는 동쪽이었지만 이번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돌아 오고 있습니다. 1914년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로 돌이켰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가혹한 채찍질을 합니다. 그것이 1945년에 마무리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럽이고 어디고 남아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자신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돌이키고 그들은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거기 살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포도

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가꾸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15.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의 땅에 심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뿌리째 뽑히지 않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암 9:14~15)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첫 번째 돌아 왔을 때 약 500년 정도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A.D.70년에 다시 한번 뽑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두 번째 돌아 왔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돌아 온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10. 여호와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 된 땅에서 네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11. 여호와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흘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네가 결코 처벌을 면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렘30:10~11)

이스라엘이 첫 번째 귀향을 갔을 때는 바빌론으로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민족들에게로 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로 흩어집니다. 그 이방민족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닙니다. 대환난때 엄청난 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고치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구절

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신비로운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는데, 그들의 과거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현재는 어떠한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구름기둥으로 보호 받았고, 요르단 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소리를 외쳐서 무너뜨렸고 여호수아 때는 태양과 달이 멈추었고 기드온 때는 주의 천사가 십팔만 오천 명을 죽였고, 그야말로 기적과 기적과 기적으로 이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류역사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빼고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노아로부터 10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상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 되기 전에는 이방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야벳, 셈, 함 이렇게 세 족속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할례의 언약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의 족속의 이름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을 보시면 히브리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큰 나무 숲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므레는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로서 이들 모두는 아브람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창14:13)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 아직 안 났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상은 어떠했을까요?

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3.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땅 전역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많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4. 내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또 에서에게는 내가 세일 산지를 주어 갖게 했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다.(수24:3~5)

에서는 약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약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열 두 지파로 이어지는 것이 유대인인데,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9절에 할례를 받기까지는 아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을 때는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유대인은 할례의 표적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11절을 보면 할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준이 됩니다.

11.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엡2:11)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와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60세에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란에서 약 15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후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려 10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 민족이 대단히 선민이라고 으스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굽힐 줄 모릅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민족이요, 율법을 가진 민족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수가 적기 때문에, 즉 별볼일이 없기 때문에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신 7:7). 보잘것없는 유대 민족이 위대해지면 그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 라헬 모두가 불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성들을 주시면서 바다의 모래 같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네 후손을 늘려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슥4:6)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교만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유

일하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돌판의 율법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600개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곳에는 최고의 법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민법, 형법, 위생법등이 다 있습니다. 우상에게 자신의 자식을 바치기도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동물과 수간을 하기도하는 이방인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우월감을 갖고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권 인간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개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태복음15장에서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하십니다.

26.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27.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28.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왔습니다. (마15:26~28)

예수님은 이방여인에게 이방인을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으나 이방인은 오히려 자신을 개로 인정하고 겸손해하자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태복음에도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모습은 가끔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집”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버릴 것을 이미 마음에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유대 민족들이 한다는 소리가 저것은 마

귀왕 바알세뵐의 힘을 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 집을 나와서 호숫가에 앉으시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왕국백성의 기회가 박탈되고 하늘의 왕국은 연기되는 모습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와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마12:47)” 했을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 모두가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를 것을 예표하고 암시하는 것들입니다.

7.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신7:7)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힘도 세고, 거칠고, 혼자서 다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약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이 세상에서 없는자들 낮은자들, 지혜롭지 못한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볼일 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녀와 세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평평거리는 사람은 징검다리 연휴에 휴양지나 별장에 놀러가지 교회에 안 나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바울과 같이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긴 주십니다. 율법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헨리 모리스처럼 훌륭한 과학자에게도 주십니다. 피터 릭크만처럼 아이큐 190인 사람에게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가르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별볼일 없기 때문에 너를 택해서 너희 힘으로 대단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저건 기적이다! 저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택할 당시에 온 중동지방과 온 세계가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미라미스, 니므롯, 달신, 태양신, 바알신, 오시리스, 이시스, 등 온 땅이 우상으로 들끓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들은 잡신이고 참신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1.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2.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롬3:1~2)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에게서 구

원이 난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그 구세주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여인의 씨, 바로 그 여인의 씨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네 번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도 만들어 놓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은 유대인에게 주는 하늘의 왕국의 헌법입니다. 거기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일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십계명을 비롯해 육백여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의 타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면 이 세상이 더욱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버리니까, 소금은 밟히고, 2000년 동안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빛도 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몰골이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롬2:24)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구세주를 보내도록 거룩하게 씨를 지키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던 민족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민족을 조롱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민족을 택하셨을까?”라

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네, 저런 사람 만날까 두렵다 두려워” 하는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명에 먹칠을 한 것처럼 오늘날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칼빈처럼 자기와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잡아다 화형시키고, 자기 교회에 다니다가 나갔다고 금방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니 안 믿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네 가지 목적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분시켰습니다. 그곳은 고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가서도 섞여 살지 않았습니다. 고센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웅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아들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민족을 아들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을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이 하나님의 한 아들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또 많은 것이 성경적으로 혼동이 생깁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가 한 아들입니다.

22.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출4:22)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시고 특별관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난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밖에 없습니다.

1. 첫째 생식, 번식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self propagation(생식)을 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생존 본능 self preservation 입니다.
3.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self gratification 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본능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본능을 억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가 머리가 짧은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인 것과 어긋나게, 독특하게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한눈에 이상한 민족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와 관련해서 가인이 표를 받았는데, 가인은 흑인과 유대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민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관리로 성막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어서 성막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먹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50년 동안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인 삼손을 보내고, 기드온도 보내어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8장7절을

보면

7.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삼상8:7)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통치해주고 계신데,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간 솔로몬이 40년간 다윗이 40년간 통치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즉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고 수많은 이방여인들과 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셔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다른 사람인 여로보함으로 왕국이 찢겨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열왕국은 이스라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왕국이 되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전부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느 지파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 지파하고 말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혼동하고, 실제적으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보면 유대인이라는 말은 12지파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 이후에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721년에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포로로 잡혀갔고, 606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유다 왕국마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왕국들, 세상의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에스겔서 1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 영광된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22. 그때에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렸는데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23. 주의 영광이 그 도시의 한가운데를 떠나 위로 올라가서 도시의 동쪽 편에 있는 산 위에 서니라.(겔11:22~24)

이렇게 떠났던 영광이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되돌아 옵니다.

4. 주의 영광이 정면이 동쪽을 바라보는 문의 길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가니라.

5. 이처럼 그 영께서 나를 취해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더라.(겔43:4~5)

이것이 바로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될 천년왕국이 세워짐과 동시에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때에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들의 과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현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 봤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구약에서 수백 번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 봤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분은 여인의 후손이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표적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로부터 잉태해서 태어난 것을 이미 알았고 입증도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못 알아 볼 정도로 완전한 암흑시대, 완전한 타락, 오늘날과 같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완전히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11.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요1:10~11)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의 백성들까지 몰라봤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못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완전히 하나님의 경륜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백성이 필요 없습니다.

12.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하나님의 경륜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방인들이 드디어 복음의 맛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시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 중에 있던 민족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불순종하고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 봤지만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오순절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거부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으나 또 거부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발의 먼지를 떨면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겠다고 하여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떠납니다. 이때가 바로 참올리브나무가 꺾인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 가시덤불이고 두 번째는 올리브나무인데 그런데 그 참 올리브나무가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모든 국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하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못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스라엘이 자청합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그들은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는데 이 저주가 다 임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에 맨 밑 바닥까지 왔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했나 하면 1215년에 가톨릭 교황이 이스라엘은 인간하고 짐승하고 중간 정도의 존재이기 때문에 노란 별을 가슴에 달아주라고 했습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던 민족으로 빛과 소금으로 관리를 받던 그 백성이 완전히 타락해서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너무도 못되기 때문에 고리대금만 하고, 민족끼리 동화도 안 되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쁜 자들이라는(가톨릭주장), 반유대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3절에서 약속하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를 모두 무시하고 이제는 이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야기한 모든 축복은 우리 것이라고 해서 가톨릭교회가 독점을 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보면, 히틀러가 교황에게 배워서 유대인에게 노란표를 달아주고 특별관리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나 다름없는 자들이었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지 않는가~”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고넬료와 에티오피아 내시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881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성경을 버리기까지는 이방인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하라”고 합니다(11장). 이것은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로마서에서 대조 해 보니까 이들은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1년부터는 유럽에서는 완전히 교회가 텅텅 빈다.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성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904년에 영국은 그때까지 킹제임스성경을 가지고 300년 동안 복음을 전하던 영국 해외선교회에서 공식으로 Revised Version을 공식성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영국은 몰락했습니다. 성경을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1611년 성경을 만든 민족이지만 이 민족이 성경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야생 올리브나무인 이방인들이 꺾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1611년 성경을 만들었던 영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성공회의 최고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호모섹스는 요즘의 라이프스타일이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로빈슨이라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솔직히”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영국 최고의 신학자이고, 그 책은 한국에도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긴 어디 계시냐? 인간이 나약해서 그냥 마음속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한 번 솔직히 말해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쾌재를 부르며 동의하는 가짜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툭 터놓고 얘기해보자 당신 정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영국에서 상당수의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다렸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거둬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사야서 11장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했던 이야기를 성취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914년 이스라엘 백성은 시오니즘 운동을 벌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국으로 돌아가자. 나라를 세우자. 이런 운동을 예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918년 영국의 발포아라고 하는 외무부장관이 제1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를 도와주면 팔레스타인 땅에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인의 씨가 잉태되는 예언 성취를 방해하기 위해서 처칠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필요 없고 석유를 위해서 아랍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국이 약속을 어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때부터 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조차도 프랑스 밑으로 내려가서 국민소득도 독일 프랑스가 선두입니다. 대처가 나타나서 조금 올려놨는데, 지금은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 아래로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유대인을 버리고 난 뒤 맥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박이 심한 나라입니다. 지난번 축구에서도 홀리건이라고 하는 가장 지저분한 축구문화를 만들어 놔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으로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폭력과 섹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입니다. 그 이전 구절에는 라멕이 아내 두명을 얻었습니다. 노아의 날과 룻의 날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폭력과 섹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1900년대 이후 텔레비전에서 총 쏘는 소리와 키스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합니다. 오늘날 영화 산업에서 폭력과 섹스를 빼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 쓰시고자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1939년에 히틀러를 들어 써서 무섭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사건 후 2천년 동안을 나라 없이 해매고 박해를 받고 지내오다가 드디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부터 메시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유대 랍비들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1948년 바로 그해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아랍사람들이 쳐들어 왔으나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으로 1967년에 6일전쟁에서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인데 주변의 아랍인구가 1억입니다. 기드온과 비교해 보세요. 기드온은 300명으로 18만5천명을 이겼습니다. 300만이 1억을 이긴 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환난 때 마지막으로 한 번 완전히 불로 정화되어 정금같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시련을 겪은 다음에 정금같이 빛나게 된다고 영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교리적으로 환난시대의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정화시켜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것처럼 죽은 뼈들이 부활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참올리브나무가 다시 접붙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최고 국가가 됩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십시오.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2.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

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3.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사2:1~3)

여기 2절에서 “산”은 시온산입니다. 일곱산 위에 세워진 로마는 이미 다 망했습니다. 바빌론은 계시록에 보면 흑심한 심판을 당합니다. 저렇게 엄청난 도시가 저렇게 망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가 막힌 유적들이 싹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최고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다가 적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마와 손에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결국 용을 경배합니다. 이 때 참 메시아가 나타나서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피가 말고뼬에 찰 때까지 심판합니다.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아 완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도 이 땅에 폭력과 섹스가 난무한 것을 보면, 계시록 4장에서 성령이 위로 올라가시면 3년 반 동안 이 땅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됩니다. 아마도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Lawlessness(무법)입니다. 지금 증상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피카소가 나타나서 미술의 법칙을 깬 그림도 아닌 그림을 그리고 있고, 많은 음악가들에 의해서 음악의 법칙을 깬 음악이 만들어지고, 법칙을 깬 소설, 시, 옷 입는 방법, 머리 스타일 등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중 불법의 신비가 나타나서 통치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까?

이 세상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박해했고, 지금도 반유대주의를 외치고, 심지어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러시아에 있는데, 그 러시아에 있는 자들이 전 세계의 금융권을 혼란시켜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유대인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월가에서 무슨 폭동이 터지면 유대인과의 연관을 찾습니다. 그 만큼 반유대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신나치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을 마구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독일이 월드컵에 저서 4강에 진출 못하자 극우주의자들인 신나치주의자들이,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마구 두들겨 패고 죽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도가 더해가면 히틀러처럼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러시아등의 국가로부터 보호해주겠다고 유대인과 7년조약을 체결했는데, 3년 반이 지나더니 거처를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때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가짜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때 두 때 반 때 즉 3년 반을 보호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비행(도피라는 영어단어가 flight 임)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도망을 쳐야겠는

데, 안식일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못 가는 것입니다. 겨울이거나 아이 밴 여인에게서는 도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대환난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행기를 태워 요르단 사해 남쪽 바위도시 셀라 페트라로 데려갑니다. 어떠한 폭격을 가해도 견딜 수 있는 돌로 된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스라엘백성들을 숨겨두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보내십니다. 미가서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영적으로 “구원”으로 많이 해석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출애굽은 휴거입니다. 홍해, 즉 붉은 바다, 그곳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휴거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다를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홍해가 되어있습니다. 빨간 빛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사건은 교리적으로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광야에 가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our Father)~”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만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Our Father)”입니다. 이방인들은 “Father” 또는 “My Father”를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은 “Our Father”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은 환난시대를 연습하는지는 모르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Our Father”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짐승

의 표를 받고 바코드를 보여줘야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데, 만약 짐승의 표를 받으면 계시록에 보면 문둥병이 생깁니다. 목이 베이든지, 굶어 죽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해야 하는데, 그때 일용할 양식은 매일 새벽에 내려옵니다. 해 뜨면 다 녹습니다. 그것을 먹고 3년 반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B.C. 606년부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즉 아담이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와 자기의 죄악 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로마서 10장)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앞만 무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 “우리는 개 같은 이방인들과는 상대도 안해”, “사마리아인도 상대도 안 해”, “우리는 금식을 해”, “우리는 돼지고기도 안 먹어” 하면서 형식주의적인, 바리새파적인 종교의식과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안은 썩어 문드러진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주받은 나무는 무화과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고 마귀들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즉시로 마귀들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교회시대에는 저지를 수도 없습

니다. 성경 마가복음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는데, 그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면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성령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이 교회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하나님께 받은 표적이라고 하면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시대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셋째 하늘로 올라가 계십니다. 마태복을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의(무화과나무)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다 말라 죽은 줄 알았던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는 것입니다. 1948년 나라를 세운 이후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어 현재는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가 몰락한 나라는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등이 있는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세계 최강국이었던가 1492년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즉시로 몰락했습니다. 백 년도 안 되어 1588년 영국 해적에 의해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파괴된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역사를 읽어보면 아닙니다. 폭풍우를 만나서 싸움도 한 번 못 걸어 보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영국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스페인은 급속도로 몰락했고 영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배를 제일 잘 타는 민족이 스페인과 영국입니다. 어느 민족이 배를 타고 선교를 나갈 것인가? 스페인은 1492년에 유대인을 몰아내고 6000개의 맛소라 원문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다.

반대로 영국의 경우 우리 말로 야고보인 제임스 국왕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됩니다. 영국의 많은 국왕 중에 왜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국왕에 의해

서 성경이 번역되었는가(롬3:2)?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영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32.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고전10:32)

성경은 이 세 부류의 인간들에게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어느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세금통지서가 날아왔다면, 누구에게 온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 건지도 모르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 분명하게 내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만약에 거듭났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지상에는 육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영적으로는 구원받음과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26.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27.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
니라.(갈3:26~29)

여기서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됩니다. 주의 만찬 시 “이것은 나의 몸이요...”라고 할 때 “이것”은 영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실제적 몸으로 생각해서 빵이 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잔...”이라고 했습니다. “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가 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잔과 피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천년왕국과 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7절에 나와 있듯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더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사람은 헛된 소리에 안 속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을 보면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성경도 출판하고 위대한 책도 출간하는데...”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요즘 과학은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죽는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보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에녹은 안 죽었다”입니다. “엘리야도 안 죽었다”입니다. 예외는 원칙을 인정합니다. 원칙은 있는데 그중에 한 두 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납법에서는 예외를 한 두 가지 뽑습니다. 예를 들면 “에녹과 엘리야가 안 죽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시키면 사람은 제정신을 차리기 힘듭니다.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마지막 시대에 주는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소리가 다섯 번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에게도 읽으라고 자꾸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라오디게아시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전통과 철학으로, 헛된 속임수로,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 사람들을 속여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이 누구인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안 것은 “이방인”이라는 까뮈의 소설을 읽을 때였습니다. 이름이 좀 멋있잖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뭔가 좀 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stranger” 라는 단어인 것을 알았습니다. “타국인”, “타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성경에는 주로 “타국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타국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stranger”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가 타국인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11.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12.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엡2:11~12)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이름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물론 창세기 10장 5절에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때에 이방인은 야벳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방인의 출발은 야벳의 후손을 이르는 말이지만, 지금 신약시대에는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12절을 보면 “연방 국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연방 국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룬 뒤에는 이방인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렇게 설교를 합니다.

26.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행 17:26)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류의 모든 민족들”에 왜 이스라엘 민족은 속하지 않는지가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민23: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자라고 하셨습니다(출 4장). 민족적으로 장자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가보면,

30.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행17:30)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일단 내버려

두셨습니다.

31.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행17:31)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면

12.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엡2:12)

“외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낯선 자”는 타지인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즉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구분입니다. 할례의 언약은 창세기 17장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출발은 정확하게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은 제외되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즉 야곱의 12 아들과 이삭과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것이 유대인이고 그 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0장 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열 번째 세대인 노아는 야벳, 셈, 함의 자손을 갖고 있는데, 이방인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

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 흠으셔서 이 지상의 여러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경계를 정하셨는지 보십시오. 당연히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은 영국의 여왕이 군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연방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심국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606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다음 말씀에 나와 있듯이.

8.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신32:8)

이스라엘 12 지파에 따라서 전 세계도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6개 대륙밖에 없지만 남미, 북미 등으로 나누면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전 세계는 이스라엘 12 지파에 따라서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이게 됩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12개의 과실이 열립니다.

24.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계21:24)

여기 “민족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3가지로 쓰였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Gentiles”입니다. 다

음으로는 “민족들(nations)”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면 “heathe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종교적 측면에서의 이교도라는 뜻으로 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민족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방인”을 뜻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보편구원론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민족들(이방인)은 양과 염소로 심판하게 되면 양으로 구분된 사람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교리를 엄청나게 혼드는 것이 됩니다.

『~ 땅의 왕들이 ~』마치 솔로몬 왕 앞에 시바의 여왕이 온갖 보물을 들고 경배하러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오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26.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계 21:26)

이때에 어떻게 되냐 하면,

2.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계22:2)

지금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 믿고 있다가 나중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인구가 약 60억인데 절반이 죽고 나면 30억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 유대인을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해서 양으로 분류돼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상설교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다가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나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 년에 한 번씩 와서 의사귀를 통해서 강건함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2.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쁨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3.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시2:1~3)

이방인들은 처음에 세 종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때 벌써 온 지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지배하는 통치자가 등장했는데, 그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었고, 그것이 이방인의 왕국인데, 니므롯의 왕국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시면,

10.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였으며
(창10:10)

여기서 왕국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바빌론 왕국인데, 최초의 왕국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흐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중단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집트가 그 당시의 최고 강국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리아, 다음으로 다시 바빌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페르시아, 다음으로 다니엘이 본 신상에 보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순으로 나오는데, 다음으로 민족국가들이 들어서면서 로마가 쪼개집니다. 그러다 민족국가들이 서서히 뭉쳐서 강국이 등장하는데, 무력함대를 자랑하던 16세기 스페인, 17세기 프랑스, 19세기 영국, 러시아, 마지막 EU 등 강국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유럽연합이 로마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면서, 화폐도 하나로 만들었고, 조금 있으면 유럽연방 대통령도 나올 것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시편 2편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니므롯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의 왕들입니다.

2.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
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3.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
자, 하는도다.(시2:2~3)

결박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
을 결박해 놓았습니다. 결박이라는 단어 다음에 “줄”이라는 단어가 나옴

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27. 보라, 주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오며 그것의 엄청난 부담이 무겁도다. 그분의 입술은 격노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28. 그분의 숨은 넘쳐흐르는 시냇물같이 목의 중간에까지 이르러 허무함의 체로 민족들을 체질하리라. 또 그분께서 백성의 턱에 재갈을 물리사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라.(사30:27~28)

『~허무함의 체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30.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마13:30)

어떻게 묶는지 봅시다.

14.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16:14)

『~모으더라.』 “모은다”, “통합한다”와 같이 “경제통합 WTO”, “정치통합 UN”, “문화통합 유네스코”, “지리적인 통합 비행기”, “언어통합”, “인종통합”, 등으로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을 극복하고 온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묶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모으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 꾀에 빠진 것입니다.

8.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격노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슥3:8)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는 이방인들을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유엔으로 모으고 유네스코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19.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20.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고전3:19~20)

인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고, 유네스코를 만들고, 광케이블을 만들고 해박야, 한꺼번에 짚으로 묶어서 불태워지는 것밖에 없는 것

입니다. 얼마나 헛된 생각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시켜서 싹 걸러내십니다. 알곡은 싹 뽑아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이때에 남아있는 독보리들은 싹 묶어서 아마겟돈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십니다.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피가 말고뼈까지 차지만 새들을 이용해서 깨끗이 치워버립니다.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18.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계19:17~18)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오랫동안 있으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새들이 쪼아먹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비참한 형벌입니다.

21.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계19:21)

“칼”은 말씀의 칼을 의미합니다.

17.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사40:17)

이방인 왕들을 보면 대왕의 호칭을 갖고 있는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안문 광장을 보면 얼마나 넓습니까? 로마황제가 앉았던 계단을 보십시오. 그 거대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5. 보라, 민족들은 물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16. 레바논은 불태우기에도 부족하며 그것의 짐승들은 하나의 번제 헌물로 쓰기에도 부족하니라.(사40:15~16)

영국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가 하나님의 발판인데, 영국 같은 나라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항을 하기 위해 모여서 끈을 끊자, 결박을 끊자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비웃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반대되는 말은 이방인들의 왕국입니다. 이 단어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계11:15)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방인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창조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창세기 1장2절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아담은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5.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8:5)

아담이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세워져 있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상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왕국 이 두 가지를 아담이 동

시에 다스리고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영적으로 죽어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면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하기까지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지상의 나라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타락해서 완전히 하늘의 왕국을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인 노아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아담에게 했던 명령과 같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마귀에게 속아서 술 마시고 벌거벗고 취해서 죄를 지어 왕으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브라함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번에는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뽑아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또 실패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내려가지 말라는 이집트에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또 다른 자식도 낳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통해 하늘의 왕국을 이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 중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모세, 사울, 다윗, 솔로몬 순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이어져 갑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어져 가다가 나중에 이방인 찬탈자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늘의 왕국이 넘어 갔습니다. 606년에 하늘의 왕국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600년 이상 사라져 버렸던 하늘의 왕국이 다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B.C.606년부터는 하늘의 왕국 대신 세상의 왕국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계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21.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단5:21)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하늘의 왕국은 끝입니다. 다만 사탄에게 위임권을 주어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위임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이지만 내각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떠한 제국들이 들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재림 때부터 유대인이 다시 최고 통치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때까지 유대인은 많은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4.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 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눅21:24)

계시록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마흔두 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계11:2)

이 이방인의 때는 B.C.6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담의 영적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B.C.606년에 잃어버린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다시 임한 것입니다. B.C. 606년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의 상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계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31.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대,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32.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단2:31~33)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라고 하면서 열 발가락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절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7.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38.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 머리이니이다.

첫 번째 왕국은 금입니다. 이 금이 바빌론 제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은 비중이 19.5로 아주 높습니다.

39.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넷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두 번째 왕국은 은이고, 메대 바사 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비중은 10.47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진화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왕국이었다가 메대 족속과 페르시아 족속이 합쳐져서 새로운 왕국을 이루었는데, 전보다 질이 떨어지는 족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놋은 그리스입니다. B.C.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역사의 유명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예수님 처럼 33세에 죽었습니다.

40.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로마가 다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는 가시적인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거부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왕국을 제시하고 외쳤습니다. 7장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테반의 설교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왕국이 다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2장부터 보면

46.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47.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48.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마12:46~50)

위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육신적으로 관계를 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듭나고 주님의 형제가 된다는 새로운 경륜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장을 보겠습니다

1.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2.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마13:1~2)

“그 집”은 야곱의 집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집을 나가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는 계시록을 보면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하늘의 왕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까지는 하늘의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문제의 초점을 다시 찾으면, 교회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는 대환난시대가 옵니다. 그 대환난시대가 오면 이방인의 때가 심히 가까이 온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계11:15)

“이 세상의 왕국”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기 직전의 사건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마25:31)

“영광의 왕좌”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1장에서는 다윗의 왕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32.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33.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34.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마25:32~34)

거듭난 사람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즉 창세 이후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비된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은 창세 이후에 지상에 준비된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분명히 민족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시대에 적용해서 양인지 염소인지를 구분한다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심판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과 박해했던 사람들을 구분해서 하나는 불못에 던져지고 다른 하나는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이들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것입니다.

13.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주 네 하나님의 명령들에 네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14. 너는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말들 중의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 오른 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 지니라.(신28:13~14)

이스라엘이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림 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얼마나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되길 기대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각종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이분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셨구나 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먼저 정결케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물질적으로 최고 국가가 되는 것은 나중 일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을 거부한 것이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프로테스탄트인 근본주의자·보수주의자들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길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 거룩하게 된 백성들로 지상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지상에 하늘의 왕국이 없고 모두 영적인 나라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나라를 거부해서 빛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믿지 않으면 속게 되어 있습니다.

11.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12. 그의 눈은 포도즙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다. (창49:11~12)

11절의 초반부 “~ 포도나무에 매며”까지는 초림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구절은 재림입니다.

24.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느도다.) (창49:24)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재림 때는 돌입니다. 다니엘서에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나옵니다. 초림과 재림이 붙어서 기록되어 있어 사람들이 혼동해 유대인들이 초림 때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재림 때의 예언만 기다리고 최고가 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 중의 하나는 이 “돌”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해서 로마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전부다 이 돌을 초림으로 해석합니다. 돌이 와 다 박살을 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을 초림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재림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즙을 짜고, 불길 가운데 심판하시는 재림 기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가 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18. 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9.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월의 금식과 오월의 금식과 칠월의 금식과 시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20.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도시의 거주민들이 거기
로 오는 일이 여전히 있으리라.
21.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22.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23.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
서 열 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들었
노라, 하리라, 하시니라.(슥8:18~23)

유대인들이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은 어떻습니까?

24.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롬2:24)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배도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시
록에 보면 십 사만 사천 명이 남아서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10.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롬11:8~11)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 나게 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27.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29.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롬 11:26~29)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불렀으므로 지금은 비록 매를

맞고 있지만 언젠가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잘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까지 나서서 그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약속처럼 그들을 복주면 복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면 니므롯,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영국, 오늘날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기준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는가에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일본과 같은 나라는 성경에 따르면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무지한 가운데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솔로몬으로 하여금 모든 지혜서를 기록하게 해서 그 증거를 전 세계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유교는 잠언, 불교는 전도서 등의 영향을 받아 흔적을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나마 그들이 도덕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부한 뒤부터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년 통치가 끝나면 이방인들은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하늘을 차지하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유대인들은 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온 우주에 가득 차서 뿔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성하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용어에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특히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는데, 상당히 건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교회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회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지역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혼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지금 보이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지역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다”라고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 교회는 성경의 기록대로 마지막 때에 배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는 휴거 이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우리의 금과 은과 보석만 남고 우리의 나무와 풀과 그루터기 같이 육

신적인 것들은 모두 불에 타서 없어지고 난 후에 주님과 혼인을 올리고 나면 그때 가서 점과 흠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워치만 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적, 예언적 일들을 자꾸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바울처럼 된다고 할지라도 완벽한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점이 있고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자기는 죄인 중의 우두머리(딤후1:15)라고 고백도 했던 것입니다.

워치만 니를 추종하는 지방교회라는 모임은 이 부분을 혼돈해서 지방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야기 해 둘 것은 만약 지금 지구상에 살아 있는 사람 중 구원받은 사람이 1억 명이라면, 이 1억 명과, 이미 구원을 받고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을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성경에는 교회란 용어가 117번이나 등장합니다.) 지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보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합니다. 1884년부터 틀린 성경이 나오고, 1901년에 미국도 틀린 성경을 쓰고,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번역 자체가 잘못된 성경이 나오는, 배교의 시대에는 사람의 권리만 있고 하나님의 권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지역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변화 받아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육신적이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교회적 행위를 하는 것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 보자고 생긴 모임이 선교단체입니다. 원래 선교단체라는 것은 지역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개의 지역 교회가 모여서 효율적인 복음전파를 위해서 해외선교단체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시킨 성도들은 지역 교회로 보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 교회에서 성장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학생 선교단체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거둬낸 성도들은 이런 선교단체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선교단체들마저도 구원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약 중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가 신약의 교리에 관한 책들인데, 웬만해서는 잘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이 그나마 로마서입니다.

지금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조직체는 지역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가 이런 선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가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 우리끼리 해보자고 만든 것이 선교단체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나마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역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용어가 다섯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1.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보고 광야 교회라는 말을 사도행전 7장에 사용하셨습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좁은 뜻의 교회뿐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2. 두 번째는 심지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교도들의 모임조차도 교회로 불립니다. 즉 불교 교인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 모임도 따로 불러 모인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3. 세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에 깨끗이 정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4. 네 번째로는 지역 교회 즉 보이는 교회입니다.
5.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지역 교회와 몸된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 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만 일부 하늘로 가 계신 분은 안 보입니다. 마틴 루터 스피전 같은 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향해하다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 하나는 조직체이고 하나는 유기체입니다. 지역 교회는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직체라고 하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내에는 보이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 실체적인 조직체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성경에 따라 두 가지를 올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보이는 지역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을 때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물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 사람들이 물침례를 받지 않은 것을 생

각하면 물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거듭났다면 누구나 다 성령침례를 다 받은 것입니다.

성령침례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성령세례라고 잘못 사용되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누구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과도기적 상태인 사도행전에서 성경구절을 인용하거나,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용해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에 대해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by the Holy Ghost” 인데 은사주의자들이 전치사를 하나 바꾸어서 “in the Holy Ghost”로 고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으로 폭 잠기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속으로 (“into”)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성령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언을 받아서요? 몸이 뜨거워져서 입니까? 눈물, 콧물이 나와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근거에 따라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갈4:6)

15.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

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롬8:1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체험이 좋을 수가 있지만 느낌과 체험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령침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세 번째로는 지역 교회로는 여러 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하나 몸이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 교회의 마지막은 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중에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된 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이 과정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불로 정화시키고 신부처럼 단장을 하게 됩니다.(계 19장)

다섯 째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불렀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순절날 응답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을 뽑아서 일종의 지역 교회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로서의 몸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지상에 강림해서 성령침례가 시작되어서 휴거 때까지, 그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종류가 일곱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신랑, 신부, 신랑의 친구,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으로 딱 한 분입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는 지역 교회별로 여러 목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제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역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눌 수 없습니다. 지역 교회는 계속 분리를 해야 합니다. 더러워지면 다시 순결한 사람끼리 분리됩니다. 2000년 동안 항상 순수하게 남기 위해서 분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눌 수 없습니다. 워치만 니 교회에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사내아이에 비유를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전 휴거,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후 휴거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남아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의 왕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야 한

다고 할 수 있습니다. 90%의 이단은 성경의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교리를 교회시대에 적용하거나, 이스라엘의 환난시대의 교리를 교회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4.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5.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신비가 알려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거와 오순절 사이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6.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참으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서는 알 수 없는 신비가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

가 되고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9.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엡3:9)

교회의 기원은 오순절날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한참 동안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도 잘 몰라서 신약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복음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더러운 음식에 관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 관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정도만 알았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신비는 바울에게만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8.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엡3:8)

3.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엡3:3)

로마가톨릭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았다면 신약교회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붙잡고, 베드로보다는 바울을 교황으로 세웠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운 것이 좀 이상합니다. 또 교황은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황이 거의 다 이태리 사람입니다. 뭔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분명히 “내게”(바울)에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2.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1:22~23)

몸과 머리와의 관계입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30.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엡5:30)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환난통과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어떻게 일부가 지상에 남아있고 일부가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지체의 일부가 잘리면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

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5.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롬12:4~5)

지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우리가 같은 클럽에 속해 있으니 같이 단결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1.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22.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엡2:21~22)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엡4:16)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안과에 가보니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비타민C를 사서 눈에다 넣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원리를 이용해서 눈에 전달됩니다. 여러분은 약이 되는 푸른 채소를 사기 위해 밭을 동원해 시장에 가야 합니다. 손을 동원해서 입으로 가져가고 입으로 먹어서 식도를 지나 위의 소화과정

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눈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의 보이지 않는 특별하신 역사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3. 화평의 때는 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5.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엡4:3~5)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응답된 것입니다.

21.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22.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21~22)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응답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탄생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시편 45편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9.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10.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시45:9~10)

14.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시45:14)

관련 지어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솔로몬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왕의 신부된 솔렘 여인 이외에 왕의 동료들의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8.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아6:8)

왕비, 후궁 등 시편의 내용까지 모두 7가지가 나옵니다. 이들은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 율법 이후에 구원받은 유대인, 율법 이후에 구원받은 이방인, 오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구원받은 교회, 환난 때 구원받은 유대인, 환난 때 구원받은 이방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신부”는 교회시대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로 나오고 있으며, 환난시대에 살아남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구약 성도들, 즉 침례인 요한이 이야기했던 “신랑의 친구”, “신랑방 아이들”은 율법시대의 유대인들에 해당됩니다.

족집게처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하나 뿐이고,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 율법 이후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 율법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환난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 환난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침례인 요한과 신랑방 이이들 등으로 나누어 보면 상당히 많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초대객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신부는 하나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셀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8.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9.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여인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딸들이 그녀를 보고 축복하였으니 참으로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녀를 칭찬하였도다.(아6:8~9)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성경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21.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의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22.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

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창2:21~24)

“잠에 빠지게 하시니”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고전 11:30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30.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고전11:30)

그럼 아담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갈비뼈는 성경을 통해서 다섯 번째 갈비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은 죽음을 의미하고 다섯 번째 갈비뼈가 죽음을 가져 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뼈의 지체라는 구절이 에베소서 5:30에 나옵니다.

30.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엡5:30)

아담과 이브가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된다는 한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섯 번째 갈비뼈가 찢려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물과 피가 나온 것은 믿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죽음을 통해서 이브를 얻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2.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고후11:2)

그러나 문제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3.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고후11:3)

오늘날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신랑에게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브는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브는 신랑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유혹해 오자 이브는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지 않은 위치에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신부가 계시록 19장 9절에서 드디어 혼인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아내를 혼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아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를 치르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혼인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6. 주가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받아 영이 괴로운 여인 곧 젊어서 거절당한 아내를 부르는 것같이 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사54:5~7)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휴거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결케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10.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고후5:10)

구체적인 내용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이 없다면 에베소서 5장 27절의 구절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27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5:27)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가 우리인데,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늘 자백하고 주님께 가는 사람은 위에서 손해 볼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해 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셋째 하늘에 가면 억울해서 두 번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후회의 눈물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언제 눈물이 없어질까요? 흰왕좌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마귀가 지옥불에 던져진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1. 아무도 이미 닦아 놓은 기초 외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2.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13.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고전3:10~13)

10절에 “~ 어떻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양이 아니라 질(quality)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것으로 금(신성)과 은(구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한 일이 신성과 관련된 일인지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일로 섬겼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은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은 30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한 대속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석입니다. 보석은 구약에서 진주를 비롯해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령의 열매입니다. “나무나 건초나 짚”에서 나무는 tree가 아니라 wood입니다. 즉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목재로 사용될 죽은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나무·건초·짚”은 모두 죽은 육신적 종교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14.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 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 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고전3:14~15)

그때에 가면 우리의 모든 행실은 정확하게 평가됩니다. 잘못된 행실들은 불에 타서 “보상을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정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27.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심이라.(엡5:27)

우리의 몸은 휴거되고 정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다음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7.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계19:7)

“준비를 갖추었으며”라는 표현은 심판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깨끗해져서 준비된 것입니다.

8.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베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베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계19:8)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셨던 모든 것이 “성도들의 의”입니다.

9.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계19:9)

이 구절은 교회시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혼인식은 어린 양의 혼

인식으로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세상의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부가 주인공이지만 여기서는 어린 양이 주인공이 됩니다.

“초청 받은 자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청 받은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궁녀, 후궁, 딸 등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몸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인 교회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이브, 창세기 24장의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예표입니다.

이삭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고, 엘리에셀 종이 성령님을 예표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서 성령을 지상으로 보내는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방나라(우리 이방인)로 가서 리브가(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이삭이 들(세상 마13장)에 나가서 저녁 무렵(교회시대)에 그를 맞이하게(공중에서) 됩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중(지상)재림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또 다른 예표에 해당됩니다.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사랑(요 3:16)은 모두 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사랑은 전부 과거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얼마만큼이나 하면, 구세주로 믿을 만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표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중에 세 사람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그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변형산에도 따라갔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함께 가면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심장)에 기대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이름은 나와도 사도요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입니다. 요한 일서에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만 다섯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 사도요한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으로 요13장 23절과 21장 20절에 두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와서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특별한 현재적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그것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서도 요한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요한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에 적그리도라는 표현이 딱 두 번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신비’ 등으로 간접적으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계시록 4

장을 보면 셋째 하늘로 휴거된 요한은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신비적인 인물이고, 이를 자체가 사랑하는 제자이고, 그래서 계시록 4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휴거 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이 2장에서 3장까지 교회가 언급된 이후에 4장서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휴거 됐다는 많은 증거를 딸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예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세 부류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대상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교리로 적용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열세서신이 그리스도인에게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내용 중에서 신약 교리와 어긋나지 않고 모순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이지만 신약교리에도 나옵니다. 얼마든지 바울 서신에도 구약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교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다” 또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와 같은 구절에 가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훈계가 되도록 구약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되어있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우리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과 훈계가 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적용방법으로,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역사로 적용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되는가를 구분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과 하나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위치만 니도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혼돈해서 큰 것과 작은 것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지방교회를 하늘의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혼돈하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늘의 왕국 하면 하늘나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왕국을 마음의 현상으로 믿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도 실제 장소로 믿지 않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도 지옥을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맞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올바르게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어느 성경에도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최초로 외쳤습니다.

2.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3:2)

이 말씀으로 보아 하늘의 왕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직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4:17)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하십니다.

3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다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하늘을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신론이 됩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주가 곧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영적인 분이십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의 왕국에는 악한 것도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독보리를 뿌리는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속에는 악한 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곡과 마곡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장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하늘의 왕국)은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며 이 지상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영적이고, 도덕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7.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롬14:17)

하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실제적인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 점

* 이 두 가지 왕국은 족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하늘의 왕국은 이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이기 때문에 족보가 다윗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이기 때문에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나와 있습니다.

14.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마25:14)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와 있습니다.

11.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눅19:11)

마태복음에는 달란트라는 단위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15. 그가 하나에게는 오 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이 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일 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마25:15)

누가복음에는 “므나”라는 단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13.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십 므나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눅19:13)

마태복음에서는 나중에 충성된 종으로 발견될 때 보상으로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마25:21)

누가복음에서는 열 도시를 다스리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17.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눅19:17)

심판의 내용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니라.(마25:30)

누가복음에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상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상을 받지 못할 뿐입니다.

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 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눅19:26)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주제는 ‘왕국’ 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하면 구원부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 중에 일부 과정에 불과합니다. 누가 온 우주에서 최종 권위고 권력자인지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시각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이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범죄하여 지옥에 간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초점이 있다면 죄의 결과로 지옥을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죄가 있으면 그곳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더라” 또는 “심판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죄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소외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펼쳐나가기 위해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연방 국가에서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지가 가장 큰 관심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마귀도 하나님의 권위하에서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고 민족으로 태동하면서부터 구약에는 계속해서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에 관한 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왕국들을 다스리는 줄 아는 사람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창 1:1).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더불어 드디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세상이 누구에게 넘겨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 주며

6.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눅4:5~6)

5절에 “세상의 모든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넘겨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늘의 왕국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왕국이 되었는가? 그때가 이방인의 때인 606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왕으로 사탄을 세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했습니다(이사야14:12).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마귀가 하나님의 왕좌를 넘보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까지 끌어내려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를 심판한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납니다. 심판의 방법은 홍수였습니다. 온 우주가 물로 덮일 만큼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전 세상이 멸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왕권을 넘겨주십니다. 아담 1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나와 있지만 시편에서 해석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5.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셨사오니

7.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8.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시8:4~8)

5절에 “관”은 왕관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이 그의 발 아래 있도록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어떤 사건에 의해 타락해서 그 왕위를 폐위당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폐위된 왕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세워진 아담에게는 두 가지 왕국이 동시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왕국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아담은 하늘의 왕국의 왕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증거로 첫째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시면,

38. 계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눅3:38)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과거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폐위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여인의 씨를 보내서 자신을 멸망시킬 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든 여인의 씨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노선에 있었던 아벨을 가인을 시켜서 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셋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계속적인 방해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모두 죽이게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

라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상 왕국은 그대로 있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대로 자식을 낳으므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되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고후 4:4, 히1:3, 골 1:16)

그러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아담이 영적으로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인 나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노아가 드디어 새로운 왕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같은 명령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3.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창9:1~3)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노아도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늘의 왕국 대신에 하나의 모조품 왕국을 만듭니다. 그것이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 왕국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10.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였으며
(창10:10)

여기서의 왕국은 모조품 왕국이고, 이 왕국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시기 직전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인간끼리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 때 차지하게 되는 땅입니다.

사탄은 또다시 아브라함, 이삭,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아차리고 또다시 방해를 합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사라와 아비멜렉이 동침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 이삭에게도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기 전에는 중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에는 거듭남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의 구원과 신약에서의 구원이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만, 신약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12 지파 중 유다 지파를 지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고 무르익어갑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천년왕국의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창49:1)

여기서의 마지막 날들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들과 동일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직전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예언을 지금 야곱이 미리 했습니다.

10. 실로가 오실 때까지 흠(笏)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창49:10)

“흠”은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입니다. 이것을 훔내낸 것이 미인 대회 우승자가 들고 있는 봉과 지휘관들이 들고 있는 지휘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를 망치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사탄은 여인의 씨를 막기 위해서 부단히 방해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아들은 싹 다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막으셨습니다.

이제는 민족이 왕국을 이룹니다. 이제 하늘의 왕국은 다른 이방 민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한 민족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6.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

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출19:6)

모세는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에 그가 여수론 안에서 왕이였도다.(신33:5)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수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서너 번 나옵니다. 단어 자체의 의미는 “올바른, 곧 바른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충동질을 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급속도로 바알 숭배로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합니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니라.(삼상8:19~20)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7.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삼상8:7)

비록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모세, 사울까지 오는 과정에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이 원하는 왕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윗이 왕이 됩니다.

1.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어느 때까지 그를 위하여 애곡하려느냐? 기름을 네 뿔에 채우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하시니(삼상16:1)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영원한 왕국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세우십니다. 천년왕국은 이때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과거에도 죽 세워져 왔는데, 솔로몬 왕 때 왕국이 분열된 뒤에 606년에 여고냐를 끝으로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서 하늘의 왕국이 사라져 버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늘의 왕국을 세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12.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배 속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15.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궁핍을 빼앗은 것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16.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삼하7:12~16)

다윗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은 솔로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은 솔로몬의 왕국이 1대도 못 가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분열되었고 그 후 바빌론에 의해서 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이중적으로 적용이 필요해지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항상 역사적 적용과, 교리적 적용의 이중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또한 솔로몬에게 적용 되는 게 맞습니다. 16절은 예언적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성취하실 분께서 오셨음을 알아차렸습니다.

30.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32.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눅1:30~32)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했던 그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왕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뒤에 왕국에 대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5.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6.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렘23:5~6)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지만 연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후계 왕들은 일찌감치 711년에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갔고, 남았던 유다 왕국마저 60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여고니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장면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옵니다.

30.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을 자식이 없는 자, 자기 날들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고 기록하라. 그의 씨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좌에 앉아 유다 안에서 다스릴 자가 다시는 없으리라.(렘22:30)

여고니야에게서 유다 왕국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늘의 왕국은 사라지게 되고 세상의 왕국이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겠습니다.

21.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단5:21)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이 세상의 왕국들이 자기에게 넘겨졌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왕국들을 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 중 왕권을 갖고 있던 솔로몬으로부터 여고니야로 이어지는 왕권을 이어받았으나, 실제적으로는 왕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 중 왕권을 이어받지 않은 나단의 계보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쪽으로는 왕권을 이어받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혈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왕국이 사라진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임시로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이 처음에는 포로만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성을 파괴시키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뺏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민족에게는 포로 기간 600년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400년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기간 즉 606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이 기간의 역사를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에서 보여주십니다. 느부갓

네살 바빌론제국, 고레스와 다리우스의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제국입니다. 로마제국의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갑자기 침례인 요한이 등장해서 사라진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약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었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라진 하나님의 왕국과 606년에 사라진 하늘의 왕국(하늘의 왕국)이 함께 다시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물질적 가시적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 지상을 통치하실 왕으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써 영적인, 도덕적인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두 가지 왕국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만 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했던 그 왕국이 다시 임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배교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무시하고, 이방인에게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식민지 생활하는 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가 오셔서 약속대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줄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초반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자신들의 정치적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헌법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 총독을 몰아내고, 이방인을 몰아내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은 자신들의 왕은 카이사르밖에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맘에 들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예언대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왔을 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물었을 때 유대인 학자는 미가서의 기록을 통해서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14.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마12:14)

예수님께서 안식일도 어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천국)이 30번 언급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 다섯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신 것을 아시고 아래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마13:1)

“그 집”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집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하늘의 왕국이 어떠하다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왕국은 지금 신비로운 형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라져버렸는데, 하늘의 왕국이 없는데도 마귀가 하늘의 왕국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기 멀리 가 계십니다. 그런데 왕 없이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에서 왕국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직 베드로가 유대인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거부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이 무지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줄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가 죽은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표적을 보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죽인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시된 그 왕국이 스테반의 설교가 거부되고 죽임을 당하면서 결정적으로 거부되고 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의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곧바로 재림하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

이지 않아서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대환난 때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7장부터 천년왕국까지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하늘의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 즉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은 이후에 한 번도 하늘의 왕국(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가? 침례인 요한이 하늘의 왕국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헌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은혜시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하십니다.

5. 예수님께서 이 열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6.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7.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마10:5~7)

우리가 지금 전해야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연기된 이 왕국을 이용해 가짜 왕을 세우는 음모가 일어날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의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4.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계13:2~4)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다시 7절에서 왕이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7.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계13:7)

여기서 “성도”는 대환난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계13:8)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하늘의 왕국이 위조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을 다시 가지러 오시기 전까지 교회시대에서

는 하나님의 왕국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의 경륜은 사도행전 28장을 기점으로 끝났습니다.

25.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 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 하셨도다.

26.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27.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28.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행28:25~28)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31.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행28:31)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더 이상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대환난시대에 유대인들이 외치는 복음입니다.

이제 가짜 하늘의 왕국을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재림 전에 가짜 하늘의 왕국을 준비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를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국가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걸쳐 종교통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스라엘에게 왔던 하늘의 왕국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다윗의 왕국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톨릭교회이고, 하늘의 왕국은 가톨릭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가짜 하늘의 왕국을 대표하는 로마황제가 A.D.313년에 결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콘스탄틴과 가짜 하늘의 왕국을 만든 가톨릭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기회주의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정권만 장악하면 즉시로 그쪽으로 붙어 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도 제2차 세계대전도 로마가톨릭이 부추겨서 일어났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나폴레옹 전쟁도, 장미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이 땅에서 흘러진 피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하늘의 왕국을 자신들이 이 땅에 세워보려는 인간들의 노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하늘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만 해도 히틀러를 비롯해서 나폴레옹, 알렉산더 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제거되었고, 그리스도 시대에는 로마가 빼앗아 갔고, 교회가 유대인의 신정정치를 모방하려 했던 가톨릭 교회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움켜쥐고, 이 지상에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결과는 십자군 전쟁, 삼십 년 전쟁, 오스트리아, 스페인 전쟁 같은 모든 유럽의 전쟁입니다. 심지어는 1861년 미국의 독립전쟁(남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북군의 군가가 하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The Truth Is

Marching On(진리가 행진하고 있다)”라는 노래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는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강박관념을 부추겨서 유럽과 미국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지상의 모든 피는 바로 그 바벨론 음녀가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마귀가 하늘의 왕국을 세우려고 부추겼던 모든 것들이 전쟁이었습니다. 음녀 로마가톨릭이 장키스칸을 부추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이 바빌론(창10장에서 시작됨)입니다. 바빌론을 조정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교황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스페인 군대를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를 함께 보냅니다. 오른 쪽에는 칼 왼쪽에는 코란이라는 이슬람 정전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하늘의 왕국을 세워보자는 시도가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벌어진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비로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늘의 왕국과 우리들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상에서는 하늘의 왕국복음이 전파 될 때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보수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이 지상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모든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왕으로 여기는 것은 정확한 적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십자

가를 지고 가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오늘날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질 것을 믿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릴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하늘의 왕국만 기다리거나, 영적인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실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지상에는 하늘의 왕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 복음이 온 지상에 전파되고 난 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왕국복음을 전파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휴거 된 후 대환난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부터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영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대충 압니다. 구약은 믿음에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신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질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6.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17.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마19:16~17)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주께서 주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0.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행16:30~31)

여기서는 구원에 관한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바울의 답변이 이렇게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고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

면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이라는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는 책이지 이 책 자체가 신약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이 체결되기 때문에 26장 이전의 내용은 구약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과 6절이 구약과 신약을 명백하게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5.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6.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롬10:5~7)

5절은 구약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행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믿음에서 난 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신약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떠한 행위도 안됩니다.

8.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롬10:8~9)

8절의 “그것”은 신약의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신약의 의는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깨끗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이 다 구분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좀 더 정확하게 올바르게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갈4:6)

16.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8:16)

9.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롬8:9)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롬8:26)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성령을 달라고 계속 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구절은 과도기적 구절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스라엘에서 교회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이 구절을 또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침례에 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는지를 묻는 것은 교회시대에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시대에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또 뭐라고 속입니까? 그 증거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마음속에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하십니다(롬 8:16).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전3:16)”고 하십니다. 고린도교회에는 방언은 줄줄 하면서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성령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고,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님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충만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일단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떠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는 절대 없습니다.

30.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엡4:30)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로부터 성령이 떠나시리라”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짓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시편 51편에 기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가십니다. 그러나 신약의 경우는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중보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십니다. 한 번 들어온 성령께서는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고전6:17).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반면 구약의 경우에는 사례별로 다릅니다. 사울은 성령이 임했다가 떠난 경우입니다.

10.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에,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매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삼상10:10)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14.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

게 하므로(16:14)

위 구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하면 악한 영이 괴롭힌다고 하면서 당신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1.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51:11)

어떤 부흥사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지금 죄를 지었죠? 지금 더럽습니다.”

“그럼 거룩하신 성령께서 견디실 수 있겠어요?”

“그럼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신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삼손은 성령이 떠났다 다시 임해서 기도를 응답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사기입니다. 엄청난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6.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매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
나 어머니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삿14:6)

성령이 떠난 장면을 찾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19. 그녀가 그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
의 머리털 일곱 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20.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의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
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
라.(삿16:19~20)

19절에서 힘이 떠났다는 표현과 20절에 주께서 이미 떠났다는 표현으로
성령이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삼손의 기도에도 다시 응답해서 성령이 다시 임하는 장면입니다.

28.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
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
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갚게 하옵소서, 하고는

29.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 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
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30.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삿 16:28~30)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방법이 다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식일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식교도들은 일요일 예배 드리는 것을 바알과 연관되어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를 물으면 구약의 종교의식법은 끝났고 도덕법만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구약과 신약을 올바르게 나누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안식일은 분명히 유대인에게 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방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주의 첫날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행 20:7)

(주의: 여기서 빵을 나누는 것을 주의 만찬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찬이 되려면 “잔”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broke the bread”는 식사장면으로 나옵니다. 주의 만찬을 자주하면 좋다고 해서 주의 만찬 자체를 무언가 우리에게 특별한 종교 의식으로 이해하는 이상한 교리가 나오기

도 합니다.)

안식교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 날 모임을 가진 바울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기 전에 첫째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16.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날들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출12:16)

거룩한 집회가 첫째 날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주의 첫째 날이 나옵니다.

2.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고전16:2)

헌금하는 것도 주의 첫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이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과잉충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Sunday school(주일학교)”이라고 해서 일요일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미국에서 성경의 잘 믿는 크리스천들이 태양의 신을 믿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노는 것도 우리가 바알 축제를 따르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관습이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일주일의 첫째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 중 나머지는 인간의 날이고 일요일만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킹제임스성경을 열심히 믿는 교회 중에도 계시록 1장의 주의 날을 일요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0.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계1:10)

여기서의 “주의 날”을 대부분의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일요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 날”은 사도 요한이 2천년을 건너뛰어 휴거의 시점으로 이동되어 있는 환난의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심판을 받습니다. 신약에는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겠습니다.

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33.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34.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밝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감금하니라.

35.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시매

36.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민15:32~36)

이것을 모방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3일씩 가두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구약식으로 신정정치를 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제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주제를 전부 구원으로 봅니다. 구약과 신약을 모두 구원에 맞추어서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신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은 뺐습니다.

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9.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롬13:8~9)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내 이름을 둘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로 가되 곧 너희의 번제 헌

물과 너희의 희생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 헌물과 너희가 주께
서원하는 최상의 모든 서원 헌물을 가지고 가서

12. 너희와 너희 아들딸들과 남종과 여종과 함께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것이요, 너희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도 그리할지니 그는 너희
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느니라.

13.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네가 보는 모든 곳에서 네 번제 헌물을 드리지
말고

14. 오직 주께서 네 지파들 중 한 지파 안에 택하실 곳에서 거기서 네 번
제 헌물을 드리며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신
12:11~14)

신약은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
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여로보암이 생각
할 때 북왕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음이 빼앗기면
자신의 왕국이 위협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락을 꾸밉니다.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
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
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
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
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을 보라, 하니라.

29. 그가 하나는 뱀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왕상12:27~30)

분명히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뭐 하러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느냐며 가까운 곳에 다른 예배당을 마련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요즘 적용하면, 텔레비전만 켜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뭐하러 예배당에 나가냐고 핑계를 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뱀엘과 단 두 군데에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여로보암의 죄를 거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 사고 방식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21.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23.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요4:20~24)

20절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여러보암이 단과 벧엘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시리아인들과의 혼혈이 된 혈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영과 진리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배의식과 방식은 레위기를 살펴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면 됩니다. 구약의 제물은 짐승의 피를 바쳐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제물(찬양, 선행, 열매, 등)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향을 피우고 이상한 모자를 쓰고, 성수를 뿌리는 행위를 하면서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가톨릭입니다.

사람의 영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모두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십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불러 넣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십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21.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전3:21)

다윈이 이것을 알았다면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윈이 알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18.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20.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전3:18~20)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재료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짐승과 사람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영은 사람과 짐승이 다릅니다.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멎어야 죽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7.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전12:7)

다윈은 신학생이었지만 정확히 공부하지 않아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영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차이점인가? 바로 혼입니다. 그럼 혼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17.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시9:17)

여기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도 아니고 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 사람의 혼이 거기(지옥)에 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사로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많이 적용되는데,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22.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눅16:22)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죽은 자들의 혼을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습니다. 이 시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처럼 곧바로 셋째 하늘로 못 갑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연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셋째 하늘로 가기 전에 거쳐가는 곳이 있을 거라는 그들의 추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품’은 구약에만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라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부자가 묻혀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고, 다음 절에서 눈을 들

어 보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옥에 있는 것은 육이 아니라 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눅16:23)

혼이 눈을 갖고 있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구절에서 혼이 고통을 느끼고, 혀가 있고 소리도 지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영과 혼이 인간의 육과 함께 무덤에서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만약 모두 소멸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영혼이 소멸되거나 지옥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혼과 육이 같다고 봅니다. 민수기에서 사람과 짐승을 같은 혼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28.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로부터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 떼의 오백 혼 중 한 혼을 취하여 주께 공물로 드리라.(민31:28)

짐승의 혼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레위기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기뻐하는 구절들입니다.

6. 곧 그런 것에 달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레22:6)

혼과 몸을 같이 사용합니다. 몸이 더럽혀졌다고 해야 할 것을 혼이 더럽

혀졌다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혼과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옛 남편(몸)과 아내(혼)이 혼인을 했기 때문에 둘은 하나입니다. 그럼 왜 신약시대에는 죄를 지어도 구원이 보장되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 할례 때문입니다. 육과 혼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육이 죄를 지어도 혼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11.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골2:11)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을 육신으로부터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에는 혼과 몸이 붙어있다가 죽는 순간에 혼이 분리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혼과 육이 분리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의 죽음을 말할 때 혼이 떠났다고 합니다.

18. 그녀의 혼이 떠나려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창35:1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혼과 육의 분리가 생깁니다.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셋째 하늘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혼이 역사적으로 딱 한 번 하늘로 올라간 적이 있

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혼은 절대로 떠돌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혼은 지옥이나 낙원 즉 셋째 하늘로 곧바로 가게 됩니다.

15.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시켰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곤궁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려고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사 다시는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이 내게 알려 주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하니라.(삼상 28:15)

이 구절에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올린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품이 지하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경우 일단 죄사함을 받아도 죄가 제거되지는 못합니다.

7.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삼대와 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출34:7)

용서와 죄씻음은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죄사함은 물론 죄가 씻겨지고 제거됩니다. 주께서 보혈을 이미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8.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9.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8~9)

“그분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교리를 모르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6.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요3:6)

즉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성령에게서 난 영을 말합니다. 거듭난 영, 새 사람인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영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육입니다. 우리의 혼은 육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셋째 하늘에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8)

10.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요일1:10)

1.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2:1)

“만일 우리가 범 죄하여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한 것은 거듭난 영에 관한 것입니다. 속사람을 따라서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교리가 성립됩니다.

왜 구약성도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속죄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변형산에서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낙원에 있는 사람을 올라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면 곧 바로 예수님께로 소유가 옮겨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이 몸은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7.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행2:27)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무덤에서 썩지 않았습니
다. 예수님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서 거
기에 있는 모든 포로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셋째 하늘로 가지 못하고 임시거처인 낙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존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창조도 되기 전에 이 우주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도전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시면,

13.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사14:13~14.)

이 말씀을 보면 “I will(내가 ~을 하겠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나옵니다. 13, 14절에서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펼쳐나가는 경영방침을 방해하려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영적인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전에는 마귀가 무관심합니다. 내버려 두어도 자기편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행동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다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뭇으로 던져지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마귀만큼 많이 혼란을 일으키고 모르고 있는 것도 드뭅니다. 웬만하면 마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질병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하고, 가난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부정적인 것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일은 마귀가 맡아서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붙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과소평가할 존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마귀에 사로잡힐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직격탄으로 “사탄아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다. 마귀가 손 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구원받은 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눈, 팔, 다리는 언제나 손댈 수 있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그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상한 기분이 든다는 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마귀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속습니다.

우선은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마귀가 온 세상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12:9)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옛 뱀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모두 넘어졌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인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4.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계13:4)

용을 경배하고,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인류의 마지막에 자신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으로 속일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보다도 더 현명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마귀도 그중에 일부입니다. 결코 창조주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13.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북과 네 피리의 작품

이 예비되었도다.(겔28:13)

15.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겔28:15)

하나님께서로부터 완전하다고 평가받고 지혜와 아름다움이 충만하다고 평가를 받는 창조물 중 최고의 지위를 누리던 자가 결국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고 반역을 하게 되어서 이사야서 14장에서 지옥으로까지 끌어내려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5절에 모두 “창조된 날부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욥기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인 것 같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창세기 1장 창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양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그룹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7.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욥38:7)

마귀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영적인 존재들이 창 1장 1절 이전에 창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사탄도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6.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

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욥1:6)

두 번째로는 마귀가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됩니다. 에스겔서에 28장에 보면 그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 그리고 계시록 4장에 보면 그룹은 4개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고, 조류를 대표하는 독수리가 있고, 가축을 대표하는 소가 있고, 맹수를 대표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 생물을 대표하는 파충류, 양서류를 대표하는 다섯 번째 그룹이 없습니다. 하나님 왕좌 위를 덮는 그룹이 타락해서 쫓겨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입니다.

12. 사람의 아들이여,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총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두로 왕을 빗대어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왕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예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복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두로왕은 에텐동산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여
기서 언급된 보석은 제사장의 흉패에 붙이는 보석들입니다. 마귀는 제사장
의 직분을 수행했던 존재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찬양을 담당했던 지휘자였을지도 모릅니다.

14.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
다.

실제적인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 위를 덮고 있는 그룹이
었고, 기름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15.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이전까지는 완벽했지만 드디어 불법이 들어와서 이하 구절에서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16. 네 상품이 많으므로 그들이 네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네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
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겔
28:12~16)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루시퍼라는 마귀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전 세계의 다른 성경에도 마귀의 이름인 루시퍼라는 이름을 없앴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둠에 있는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길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시퍼는 라틴어입니다. “룩스”라는 빛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와 운반한다는 뜻을 가진 “페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루시퍼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빛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깨달음과 빛을 연관시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시퍼가 마귀의 이름인지 모르고 그 뜻만을 생각해서 루시퍼라는 모임을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이 그룹 중에 다섯 번째인 덮는 그룹입니다. 네개의 그룹만 나오고 하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귀는 송아지, 날개달린 그룹, 황소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뿔이 달렸고, 날개가 달렸고, 몸은 뱀입니다. 마치 나는 용의 모습입니다. 이 나는 불뱀의 모습은 미국 군대의 의무부대에서 막대와 뱀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뱀 숭배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으로부터 온 세상이 얼마나 바벨론 숭배에 깊이 빠져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이름은 리워야단입니다. 용입니다.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칭호는 빛의 천사로 불렸습니다.

14.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고후11:14)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천사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흉내 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통치자입니다. 마귀는 공중권세의 통치자이고, 어둠의 권세자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이 세상의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칭호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마귀가 과연 진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격체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어떤 인격체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추고 스스로 자율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를 말하는데, 인간처럼 꼭 몸을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지만 사람처럼 몸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그런 면에서 분명 인격체입니다. 이것은 성령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만을 빌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께서도 탄식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도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요8:44)

마귀의 성품은 어떤가 보시겠습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물론 생명을 도둑질하지만, 그보다 먼저 도둑질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마13:19)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 와서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요10:10)

두 번째로 마귀의 성품은 간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을 마귀는 슬쩍 속여서 혼란케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잠언 2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슬쩍 “예수님도 포도주를 한 두잔 하셨는데…” 하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포도주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포도즙을 똑같이 와인이라고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new wine 과 old wind이 있습니다. mew wine은 새포도주인데, 이것은 백퍼센트 포도즙을 이야기합니다. old wind은 발효가 되어서 술이 되기 이전의 순수한 포도즙을 이야기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술을 만드셨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것은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서 그렇습니다.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
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개역개정 요2:10)

개역성경에는 “취한 후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영어로 “well drunk”입니다.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마신 뒤에”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10.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
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 두
었도다, 하니라.(요2:10)

한나가 취했다고 했을 때는 “drunke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킹
제임스성경에서는 “drunk”와 “drunken”을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13.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매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
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삼상1:13)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브가 속았습니다.

3.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
라.(고후11:3)

마귀가 이브에게 가서 아주 교묘하게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고 의문을 던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면,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친구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라고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마귀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결국은 합리화 시키도록 교묘하게 속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살인자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단독으로도 역사하지만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4.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2:4)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지만 죄를 지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어린 아이를 천사 같다고 하지만 천사가 좋은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그분의 그리스도가 있고 마귀의 그

리스도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대문자 마귀와 소문자 마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귀신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귀신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어서 떠돌아 다니는 혼백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떠돌아다니는 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셋째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지 떠돌아다니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를 귀신으로 번역한 것도 마귀들의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정사, 권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정사, 권세는 천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귀는 히틀러, 나폴레옹 등과 같은 통치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헤롯을 이용해서 두 살 아래 어린이를 모두 죽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로라는 통치자를 통해서, 로마를 불태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몰아 수없이 죽였습니다.

마귀는 또한 이 땅의 모든 개인들을 이용합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악함과 폭력으로 가득 차도록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의 교육 방법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혼으로 들어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몸의 빛은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선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 부분이 마귀의 간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21.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22.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마 16:21~22)

마귀는 베드로가 거의 책망(rebuke)에 가까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말리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가 스승에 대한 올바른 도리인 것 같습니다. 선하고 경건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23.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마16:23)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가족이나 친구는 그 길은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그나티우스라와 폴리카프 같은 순교자가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이런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잘 속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했다면 안 믿었을 텐데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마귀는 거짓 사도들을 이용해서 역사합니다. 학문과 사회적 권위가 높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들이 역사하는 방법

사도들의 표적, 치유의 역사 등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능력만 보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압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4.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4:3~4)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으면 그분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고소를 합니다.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송사에 대해서 변호인을 갖고 있습니다.

“너 지난주에 성경 한번도 안 읽었잖아!”

“너 또 성질 부렸잖아!”

“너 같이 죄 짓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책 들고 교회 가니?”

이렇게 계속 송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말이 맞다”

“내가 나약해서 졌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다 자백하고 죄 씻음 받았어!”

“내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네가 나에게 할 말이 뭐가 있어?”

“나는 너에게 빚진 게 없어!”

성경에 육신에게 빚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못하셨다면 아직 지옥에서 내 죄값을 치르고 계실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보증수표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31.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눅22:31)

네 번째로는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육신은 사탄에게 내 어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독보리를 심고 거짓 교리를 전파합니다. 홀륭하고 보수적인 학자들을 핵심 도구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합니다.

13.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

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살전2:13)

성경은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더욱 효과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어도 믿는 마음으로 받아 들인 사람하고 머릿 속에 남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제일 핵심 목표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브에게 써먹었던 방법은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떠한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고 하셨느냐?”

이러한 모든 의심은 마귀가 넣어 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에 보면 마귀는 다섯 번에 걸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하나님께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두움, 공허함 등의 단어를 통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둘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0장, 요한계시록 4장, 모두 다섯 번째 덮는 그룹이 없습니다. 네 그룹밖에 없는 것은 한 그룹이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쫓겨났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8.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10:18)

지금은 이 세상의 신으로 공중에 권세를 잡은 신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한 단계 더 끌어내려집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실락원이라는 소설을 쓴 영국의 작가인 존 밀튼은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창세기 1장의 과거적 사건으로 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9.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

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
도다.(계12:9~10)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12.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
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계12:12)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기도처럼 하나
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늘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옅기에는
하늘들이라고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끗게 될 날이 있습니다.

21. 그 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사24:21)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은 지상의 왕들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높은 자”
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에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음이 나타납니다.

12.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
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계12:12)

마지막 발악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계12:13)

“사내아이”가 철장으로 다스릴 그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 받게 하려 함이라.(계12:14)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운반하듯이 너희들을 품어서 이끌어 냈다는 말과 통합니다.

드디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땅으로부터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천년 동안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곡과 마곡의 반역이 있고 나서, 불뿔으로 던져지는 마지막 다섯 단계의 쫓겨남이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은 빛의 천사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실제적으로 욕기에 보면 둘째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깊음 속을 술에서 꿀이듯 꿀이며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와서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사탄은 갈보리에서 영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아마겟돈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은 이미 선고 되었지만, 집행만 아직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집행이 되었다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우리를 괴롭힐 필요가 없어집니다.

15.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골2:15)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실 때 베드로를 동원해서 일차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마귀는 여러 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과정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마귀를 잡아 넣어서 한꺼번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롬16:20)

미래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변개된 성경에서는 과거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압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운명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더욱 발악을 합니다. 그래야 에스겔서 30장에서처럼 웃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디스트입니다.

마귀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은 피해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처럼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망갈수록 쫓아 옵니다. 뱀이 모세를 쫓아오는 것처럼 계속 쫓아옵니다.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확 돌아서서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시험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욥기 40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인 베혜뿔에 관한 언급입니다.

18. 그의 뼈들은 강한 놋 덩이 같으며 그의 뼈들은 쇠막대기 같으니라..

19.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욥40:18~19)

아무도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는 위로부터 권세를 받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신갑옷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11.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계12:11)

결론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탄인 마귀라는 존재 말고 일반적으로 “귀신들”이라고 알려진 존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귀신이 아닙니다. 이들은 악령, 더러

운 영, 또는 마귀들입니다. 귀신이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축사, 귀신 쫓는 집회 등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대문자 “신(God)”이 있는 반면에 소문자 “신들(gods)”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있는 반면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Son)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sons)”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반면에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있는 반면에 마귀들이 있습니다. 단어가 헬라어로 “다이몬”입니다. 이 단어를 번역을 해서 데블즈(devils)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은 킹제임스성경밖에 없고, 다른 성경은 번역을 안하고 음역을 해서 “디몬(deamon)”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몬을 마귀와는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마귀들이라는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제까지의 전통적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가르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인간의 형태, 짐승의 형태, 혹은 반인 반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혼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천사장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에 천사장은 미가 엘밖에 없습니다. 가브리엘도 천사장이 아닙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설명입니다. 루시퍼는 천사와는 관계없는 ‘그룹’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막연하게 천사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귀 편에 들러붙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작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단의 악령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타락한 천사로 생각해서 천사가 작다는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 때문인데, 특히 소크라테스가 “내가 지혜를 구할 때 다이몬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몬을 지혜를 주는 좋은 신비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Genius라고 해서 지혜로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스위스 산장에서 썼는데, 그때에 니체는 매독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의 미치광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라는 인물입니다. 어떤 희한한 음성이 들려와서 자기가 그것을 받아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다이몬입니다. 마귀의 일종입니다.

요즘에서 산에 가서 음성을 듣고 왔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또다시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죽은 듯이 쓰러졌고, 다니엘도 놀라서 죽은 듯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속임수의 예수님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심판주로 계시는데, 그 앞에서 심장이 떨리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의 거인들이 죽어서 디몬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들의 기원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죽

어서 디몬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설이 있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멸망당한 아담 이전의 인류의 영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득 채우라 했기 때문에 뭔가 가득 차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빌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닐라 같은 나라에 가면 자신의 나라 말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귀신들렸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누가 귀신들렸다고 해서 목사가 귀신을 쫓으러 가서 “너는 누구냐?”고 하니까, 국민학교도 안 다닌 할머니가 “I am John”이라고 하면서 남자 목소리의 영어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 할머니에게는 죽은 미군의 귀신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귀들이 속이는 것이지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의 존재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는 부정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23.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막1:23)

27.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나?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 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막1:27)

두 번째로 마귀들은 인격적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지식도 있고 미래도 점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점치는 젊은 여자도 나옵니다. 다이나나를 위해서 점쳐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왜 때가 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도덕적으로 더럽습니다.

네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놔는데 다 풀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병어리, 소경, 정신이상자, 자살광 등을 일으킵니다. 병어리가 모두 마귀가 들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병어리를 일으키는 마귀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복음을 전하려다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군단의 마귀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단이 천 명이라고 하면 돼지 속에 천 명의 천사가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파리와 모기 등의 벌레에 마귀를 비유합니다. 마귀는 파리보다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 속에 천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검은새와 흰새가 나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겨자씨를 심어 놔더니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둥지를 틀었다는 비유도 나옵니다. 마귀들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중의 새는 마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대적하고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마귀들의 교리를 전파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과 혼인을 금지하는 것과, 고린도후서 11장에서처럼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가짜 교리를 만들어서 전파합니다.

수많은 마귀들은 군대처럼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마치 왕국과 같습니다. 이 세상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마귀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막판에 마귀는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 마귀들을 휘하에 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온 우주에 깔려 있습니다. 이 어둠의 왕국은 질서정연하게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교만, 야망, 이기심, 욕망, 쾌락으로 몰고 갑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엡2:2). 마귀들의 최종 목적지는 불뭇입니다.

마귀들의 실행을 보면, 실제적으로 마귀들이 역사하기 좋은 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신접하는 것, 점치는 것, 손금, 관상, 주술, 최면술, 운세, 역학, 우상숭배, 제사, 시체접촉, 연금술, 마약 등이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와 마술이라는 단어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마약중독은 모두 마귀들의 짓입니다. 처음에 이브가 어떻게 속았겠습니까? 마귀라는 단어는 언제나 최면술 마술 등의 단어가 관련 됩니다. 이브가 마귀를 쳐다 보는 순

간에 최면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아담을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귀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어둠을 좋아합니다. 모든 마귀들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이 오면 싫어합니다.
2. 사탄이 악한 존재(인격체)라는 것을 거부하고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에서 가르칩니다.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합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 쫓아내는 방법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2.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3. 금식합니다(마17장, 개역성경에는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4.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찬송
5. 중보기도를 합니다
6. 전신갑주로 예방합니다
7. 기도와 말씀(공격무기)으로 무장합니다.

일곱 번째, 마귀들의 공격방법

1.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듭니다.
2. 잠 못 자게 만듭니다. 수면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렵게 만듭니다.
3. 신경질 나게 만듭니다.
4. 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합니다.

5.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6. 쓸데없는 데 돈 쓰게 만듭니다. 이것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7. 유행에 민감하게, 추종하게 합니다. 패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고전7:31)”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순간적입니다.

8. 방언 체험입니다. 방언 체험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방언이 임하지 않습니다.

9. 공상, 좌절

10. 스스로를 드높이는 행위 :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이고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1.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문맥에 맞지 않게 교묘히 속여서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떨어지면 천사가 받친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때 마귀는 “어느 때나”라고 인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다는 뜻으로 인용하게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 때 받으실 영광을 가리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고 군사로서 견뎌내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마귀가 밀어붙일 때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천사론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천사들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사람이 죽은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노아 시대의 타락은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멸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계가 폭력과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육욕의 대상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죽은 걸 주요하게 생각을 해서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아가 의의 전파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노아의 홍수의 근본적인 문제는 타락한 천사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천사에 관한 것을 다 찾아 보고 나서야 천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이미지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에는 악한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천사들이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도 천사의 집이라고 하고, 천사들의 합창단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탄을 천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사탄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

다. 빌리 그라함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천사장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1. 성경에서 천사들에 대한 존재 사실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2. 천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힘들어 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 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창16:7)

3. 천사는 창조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공중에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다 기뻐했다는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사 숭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물은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된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유대인들의 천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4.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였다 안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5. 인간의 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만유인력 법칙, 열역학 법칙등과 같은 법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갈 수 있고, 불에 타지도 않고, 벽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6. 힘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천사가 십팔만 오천 명을 죽인 기록이 나옵니다(왕하19:35). 천년 동안 마귀를 결박하는 일꾼도 천사입니다.

7.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롭다는 표현이 나옵니다(삼하14:20).

두 번째로 천사들의 성품과 본성을 보면 히브리서에서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만 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33세의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는 항상 젊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천사가 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 젊은 천사,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변형될 모습을 확인해 볼 때 천사들은 이 지상에 나타날 때는 젊은 33세 반의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9절을 보면 여성 마귀가 등장합니다.

9.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슥5:9)

위 구절에서 날개를 달고 나오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천사로 오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천사가 아닙니다. 날개 달린 천사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성경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이 봤던 주, 하갈과 모세가 봤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부활할 때 우리가 모두 천사처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마가복음 8장 38절(“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을 보면 주님께서 데리고 오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는 변화되어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택함받은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 받은 천사들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딤후5:21)

네 번째로는 아담은 33세의 청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33세 반에 죽으셨습니다. 천사도 33세의 젊은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근거로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부활 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된

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2)

성경에는 우리가 미래에는 어떤 모습을 할지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예수님과 닮은 모습의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천사를 일반적으로 사자(使者, messenger,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돕기도 하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돕기도 하고, 바울을 돕기도 하는 등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한마디로 현현(顯顯, appearance, 나타남)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는 국가를 대표하기도하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 아이를 대표하기도합니다. 천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하늘에 중계방송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천사가 그분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화면을 보듯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천사의 종류와 수는 셀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계5:11)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12 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려오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히 12:22)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의 종이 무서워 벌벌 떨며 기도할 때 눈을 떠보니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불병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식(生殖)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십시오.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36.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눅20:35~36)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제 죽냐 하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늘의 처소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내려와서 피를 취하면 죽습니다. 땅에 내려와서 짐승이던 사람이던 피를 취해서 혼인을 하면 죽습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신들이 사람들처럼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땅으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7.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 다.(시82:6~7)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기의 신들은 자기 위치를 버린 천사들입니다.

6.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유1:6)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성경에는 착한 천사들도 있고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의 계급을 보면 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유다서 9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9.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유1:9)

천사장의 이름이 밝혀져 있는 것은 미가엘 뿐입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도 감히 마귀를 비방할 수 없어서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내가 원하노라”고 하는 정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고 권위를 부여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마귀가 부여한 권위일지라

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천사, 왕좌, 정사, 주권, 권세 등 다양한 계급이 있는 듯합니다. 지상에서 장관 총리 등을 만든 것을 보면 하늘에도 이런 계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늘에 이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의 성막도 다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땅으로 내려올 천사들이 있습니다. (계12:7) 문제는 이 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지상의 사람들은 이들을 더욱 진화된 외계인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상에 내려오면 옛날과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단2:43)

“사람들의 씨”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들이”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점점 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천사 사이에서 태어나면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태어납니다. 인간이 다시 짐승 쪽으로 퇴화가 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타락입니다.

천사는 원래 거룩하게 창조되었습니다(눅9:26, 막8:38). 그중에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창1:2에서 심판 받은 것을 봤고, 창세기 4,5,6장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죄를 짓는 것을 봤고 그에 대한 언급은 시편82편에

서 사람들처럼 죽는다고 봤고, 이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4.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2:4)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난해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6. 이런 까닭에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4:6)

여기서의 “죽어 있는 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사람들과 같이”라는 구절에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면 “사람들과 같이”라고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이 후손들은 거룩하게 지음받은 천사와 죄인인 인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들도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를 가진 부모님들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할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보면 마귀를 추종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반면에 마귀의 천사들이 있

습니다. 이들의 종착역은 불뭇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11에 아직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중에 일부가 즉 3분의1이 미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 11절을 모두 과거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빌리 그라함도 그렇고 밀튼의 실락원에서도 그렇고 전부다 과거에 천사가 타락한 것만 이야기하지 미래에 있을 타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천사가 하는 사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지상에서 활동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물을 묘사하고 대표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별들이 나오는데 별들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들은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다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모습도 비칩니다.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현현(顯顯, 나타남)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주로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천사의 정의는 섬기는 영입니다. 성경에는 1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셔서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는 베드로가 묶여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또 바울은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줘서 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외에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강하게 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

민수기 22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대신 해서 7만명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자신을 신으로 받드는 소리를 듣고 교만해지자 천사가 쳐서 죽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쭉정이를 왕국에서 모아다가 심판하는 일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성도를 인도했습니다.

엘리아,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 도왔고,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기는 장면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율법은 천사들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19.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갈3:19)

실제로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의 설교를 보시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림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합니다. 거듭난 형제들이 휴거와 함께 하늘의 천사와 같이 살과 뼈로만 이루어진 33세의 젊은 청년으로 변화된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옵니다.

마지막으로 교리적으로 히브리서를 갖고 유추해 보면, 만약 아담과 이

브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브가 자식을 낳으면 5년에 1명씩만 낳아도 노아의 홍수 전에 지구의 인구가 5천억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구라는 한정된 곳에서 머물게 하시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후 죄와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고 나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구는 순식간에 차고 넘치겠지만 우리에게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영원하다는 표현과 끝이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단어와 관련 지어 나옵니다. 끝이 없다는 표현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영원한 왕국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이주시킬 것인가?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천사가 데려갔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천사와 인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비록 창조될 때에는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천사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알아보기를 사모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시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은 우리에게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지금 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대환난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임무가 천사들에게 주어지긴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그가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힘모한다고 했습니다.

12.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벧전1:12)

우리가 천사보다 낡은 또 다른 점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고전6:3)

우리들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천사에 관한 기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은 피가 없으므로 구속과 무관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는 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일단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에서는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피를 얻어 출산을 해서 얻은 아이들은 죄악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호천사로 알려진 천사들은 임시적으로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지만 원래의 역할은 하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뵈는다고 했고(마18:10)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단9:10~11)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계 2:3)

다음으로는 주의 현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삼손의 부모님에게 나타났었고, 창세기에서 하갈에게도 나타났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 등 여러 번 나타났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는 천사들의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교회 시대 중 라오디게아 교회시대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라오디게아와 인접해 있었고, 골로새서에 라오디게아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글을 읽으라고 나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인 철학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중의 하나가 로마 가톨릭의 특징입니다.

18. 아무도 꾸며 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골2:18)

“자의적인 겸손”은 자기 비하와 지나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인품이 아니라 자연스럽지 못한 꾸며진 인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끼고 걷는 것도 지나치게 가식적으로 걷거나 목소리도 평소와는 다르게 가식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를 봅니다.

일곱 번째 천사들은 보여질 수 있고 인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음식을 차렸더니 천사가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덟 번째 재림 직전 천사들은 33세의 외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다시 여인과 결합해서 사람의 씨, 독사들의 세대, 혼혈종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이 나타날 것입니다.

천사들은 별이라고 불렸습니다.(계1:20)

창세기 6장과 연관해서 레위기 20장에 수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짐승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욥기 26장 25절에 보면 “죽은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18장15절에 “물속에 있는 자들” 또 계시록에 보면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들은 인간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구렁 속에 있는 괴물들 즉 계시록 9장에 보면 지옥이 열리면서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상한 존재들이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입니다.

천사들은 마지막 시대 때 미혹의 주체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숭배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일곱의 법칙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9.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벧후1:19)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일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살펴봅시다.

특이한 사항은 일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동사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뜻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은 바뀔 수 없는 법칙입니다. 마치 만류인력의 법칙이 이 땅에서 바뀔 수 없는 법칙인 것처럼 일곱이라는 법칙은 바뀔 수 없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행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뜻은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일곱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얼마큼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롬1:20)

하나님의 계시를 얻는 방법 중에 기록된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지만 눈에 보이는 자연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을 신학적으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눕니다.

그럼 자연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피아노 건반을 보면 도부터 시까지 7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무지개 색을 이야기할 때 일곱색으로 이야기합니다.
3. 인간의 세포는 7년마다 물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4. 몸의 지체를 보면, 팔, 발, 머리, 눈, 코, 입, 귀의 일곱 개의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세상에서 일곱이라는 법칙을 갖고 실행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곱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결론 부분인 계시록을 보면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호리병, 일곱 인이 나옵니다.
2. 계시록 22장에 가면 책이라는 말이 일곱 번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곱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육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경륜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표적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12.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

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겔20:12)

20.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겔20:20)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에 보면 첫째 날 모여서 헌금을 했고, 첫째 날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첫째 날 빵을 떤다고 했고, 오순절 성령강림도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선수를 쳐서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빌미를 안식교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안식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로마가톨릭이 하는 미사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정해놓은 것에 승복해서 세상이 정해 놓은 휴일 점심식사 전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유명한 율법 이전의 사건입니다.

14.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15. 너희는 이제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6. 첫째 날에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일곱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

회가 있으리니 이 날들에는 각 사람이 먹는 일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오직 그 일만 할지니라.(출12:14~16)

율법 이전에 첫째 날 집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만
성회가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첫째 날이 먼저 언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일곱 번째 날 뿐 아니라 일곱 번째 주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
활하신 후 일곱 번째 주 49일이 지나고 다음날 이 50일째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
음에 새기는 율법인 성령을 주신 날도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
뀌는 순간입니다.

일곱째 달도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명
절 3개가 일곱째 달에 끼어 있습니다. 나팔절(첫째날)과 속죄일(7월 10일)과
장막절(7월 15일)입니다.

일곱째 해도 중요합니다. 출애굽기21장이나 레위기25장에 가시면 일곱
째 해에는 히브리 노예들을 놓아 주어야 하고, 농사를 쉬어야 합니다.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
년째에 3년치의 소산을 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하
나님과 7년째 안식을 지켰지만, 아미도 사울이 왕이 된 이후부터 7년째 안
식을 지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부터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하므로 6년 농사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과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달라고 했으니 사

람 왕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무려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칠십 번에 해당하는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안식년을 채우신 것입니다.

만약 이 성경적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지켜졌다면 식량 위기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땅이 몇 천년 동안 계속해서 쉬지를 못했으니 지력을 다 상실했을 것입니다.

7년씩 일곱 번하면 49년인데, 다음해인 50년째는 환희의 해 또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에는 노예도 풀어주고 땅 빼앗긴 자도 다 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사고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7천년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루를 천 년으로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8.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벧후3:8)

천 년이 하루 같고 일곱째 날을 적용하면 7천 년째는 하나님께서 쉬시는 해가 됩니다.

민수기에는 하루를 일년으로 계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이 소식만을 전해와서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일년으로 쳐서 40년간을 광야생활을 하게 합니다.

시편에도 천년을 하루로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 주의 눈앞에서는 천 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

나이다.(시90:4)

계시록 20장에는 천 년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여섯 번이 나옵니다. 인류의 역사를 6천 년으로 한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바닥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4.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7.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계20:2~7)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일곱번 나옵니다.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7.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의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 그러므로 이르되, 그분께서, 조금 있으면,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19.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고 말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끼리 문의하느냐?(요 16:16~19)

예수 그리스도께서 7천년째에 오십니다. 6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7을 염두에 두고 언급됩니다. 7천 년이 지나고 8천 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할례를 왜 8일째 받는지를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7천 년이 지나고 8천 년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할례(circumcision)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력의 근원을 드러내는 것(revelation)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입고 있는 우주를 말아서 옷을 벗어버리시게 됩니다. 순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계시하시는데, 그때에는 너무도 거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일곱과 관련지어서 “4와 “3”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시면 4개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3장에 가서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면서 4와 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송하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문은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사실상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 것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 드리면 되는지 물은 데 대한 답변입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문을 보시면 역시 4 대 3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으로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똑같이 달달 외워서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4가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세 번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네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3가지

첫 번째 “이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세 번째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와 같이 4와 3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빛을 창조

둘째 날 창공을 창조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

그 후에 비로소 창세기 1장 20절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하필이면 넷째 날이 끝나고 다섯째 날이 시작될 때 나오는가? 아담의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의 성전봉헌을 B.C. 1000년경으로 보고 어서 주교의 연대기 표를 보면 B.C.4000년경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시점이 됩니다.

400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이 이사야서 40장에서 인용되어 있고, 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40장부터 신약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묘사하고, 2장에서 사흘째(셋째 날)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초림 후 이천 년이 지난 후 셋째 날에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작

정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 나홀이 지나 냄새가 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사천 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구약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모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초림 이전의 구약성도를 대표하는 나사로는 나홀 후에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후 이틀 후에 휴거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과 이틀을 머무십니다. 이천 년에 해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이 주를 영접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천 년이 지나서야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겠습니다.

11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 산 위로 내려오리라.(출19:11)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은 셋째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는 시내산에 강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재림에 관한 구절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6.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출19:16)

“천둥”, “번개”, “짙은 구름”, “나팔 소리” 등은 재림에 관한 단어들이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1.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2.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호6:1~2)

“이틀 후”는 이천 년 후라는 뜻입니다. “셋째 날”은 삼천 년째에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산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며 변하시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절에 “6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놓치면 안됩니다. 인류역사 6천 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마17:1)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8.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눅9:28)

7일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옛새 후”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약 8일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이라고 알 수 있는 구절을 아래에 더 있습니다. 장막을 짓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33. 두 사람이 그분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나 그는 자기가 말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눅9:33)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장막절입니다. 초림 때도 장막절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거하다”라는 말이 장막을 친다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9월 이나 10월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림도 장막절일 것이고 지금 재림과 관련된 구름, 장막 등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눅9:31)

모세와 엘리야가 제일 관심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완전한 구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베드로는 이와 같은 분명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체험보다 예언이 더 확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6.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 줄 때에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17.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19.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벧후1:16~19)

베드로는 변형산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인간의 구속뿐 아니라 모든 우주까지 구속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마태복음 19장에서는 “regeneratio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And Jesus said unto them, Verily I say unto you, That ye which

have followed me, in the regeneration when the Son of man shall sit in the throne of his glory, ye also shall sit upon twelv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마19:28)

사도행전 3장에도 만물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Whom the heaven must receive until the times of restitution of all things, which God hath spoken by the mouth of all his holy prophets since the world began.(행3:21)

로마서에서는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For the earnest expectation of the creature waiteth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sons of God.(롬8:19)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과 들의 식물도 모두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2.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For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groaneth and travaileth in pain together until now.(롬8:22)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의 신음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에게도 찬양하라고, 이슬에게도 찬양하라고 합니다.

23.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롬8:23)

우리는 사실 절반만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고 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어찌 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신음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롬8:26)

우리의 썩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나면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도 저주로부터 놓이게 됩니다. 사자가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에는 풀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면 사자가 풀을 먹게 됩니다(사11:7). 아이들이 사자를 타고 다니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지금 여기가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재림은 7천년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 재림을 성경에서는 해가 뜰 때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 이전에는 캄캄한 밤이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이 달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같이 자라리라.(말4:2)

저녁 6시쯤이 되면 해가 지며 붉은 노을이 나타납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밤이 되었습니다. 12시간의 밤이 지나고 해가 뜨는 새벽이 6시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봅니다.

1.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데도다.

2.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3.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4.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시19:1~4)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나

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되어 있는 신격이 창조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세 가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상의 모든 것들이 3의 원리로 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신격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양은 열, 빛, 화확선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 혼, 육 3가지로 되어 있고,

어린시절, 장년시절, 노년시절, 3가지

가족은 남자, 여자, 아이

문제는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인 문제

공간, 물질,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길이, 넓이. 깊이

기체, 고체, 액체

육군, 해군, 공군

이와 같이 3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격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해가 질 때마다 예수님의 초림을 증거하고 있고 매일 아침 뜨는 해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5.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6.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시19:5~6)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시대가 이천 년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중세라는 기간을 서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일 속에 자신의 일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시대를 앞뒤의 500년을 더하면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달을 교회시대로 예표 하는데, 욥기에서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아낸 것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이내입니다.

5. 심지어 달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참으로 별들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순수하지 아니하거늘(욥25:5)

별들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보시고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대기권까지만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꾸 하늘(space)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골3:3)

감추어져 있다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뿌리를 박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나물이 나와야 하는데, 어느새 변질이 되어서 큰 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90%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10%의 거듭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거듭난 사람들을 기독교계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신실한 자들과 부르심 받은 자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30배 열매 맺는 자들 60배 열매 맺는 자들 100배 열매 맺는 자들, 12제자 중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현재의 달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7000년째에는 주님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해가 떠오를 때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새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새벽은 해가 뜨기 직전에 잠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새벽은 여러분과 저를 나타냅니다.

19.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벧후1:19)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커백션인가?	김영균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영균	272	8000
66	간극이냐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4년 10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❶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❷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 前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도서출판 포도원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엘.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사무엘. 킵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도서출판 킹제임스
- * 키스 파이퍼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도서출판 킹제임스
- * D. L. 무디 <심음과 거둬의 법칙> 라온누리

